朝鮮日報
夕刊

歐洲에 戰雲低迷! 爆發은 時期問題
中歐情勢는 大戰直前과 彷彿
무首相演說要旨

【로-마(伊太利)二十四日發聯合】 今夏北伊太利로파르와地方에서 擧行된伊太利陸軍大演習은 二十四日에 完了되엿다 旬日에 亘하야 全軍을 統監한 뭇솔리니首相은 演習參加의將官及外國觀戰武官을 압헤두고 得意의熱辯을吐하야 戰爭의危機에 關하야 絶叫하야 如左한演說을하엿다

得意의演說中의무首相

이外國觀戰武官을 압헤두고 右演說을行한것은 一層注目을끈다

戰爭을希望하는이는 아모도업스나 戰雲은 全歐洲天地에彌漫하고잇서 언제爆發될지알수업다 我等은 明日을爲한準備가아니고 今日을爲하야 戰爭을準備치안하면안된다 墺太利首相의 暗殺을契機로惹起된中歐의 情勢는世界大戰의 勃發한 一九一四年當時의 情勢와彷彿하다 伊太利는이情勢의 急迫을察知하고 直時軍隊를國境方面에集結하야 겨우戰爭勃發을避케하엿다 我等은 今後伊太利國民의 軍事的精神으로서 訓練되지안하면안된다 國家가興하고 亡하고 모다軍隊的團結如何에잇다 伊太利國民은 世際組織을爲하야 奮起치안하면안된다

뭇솔리니首相의 이演說은最近의 中歐葛藤으로부터 今日아직 조금도改善되지안흔伊太利對歐洲의 態度를闡明한것이라하야 자못重視된다 또뭇솔리니首相

剿共戰線總指揮 劉湘氏突然辭職
武器不供給、輸入防止等으로 蔣氏에 對한 報復手段

【上海二十四日發聯合】 中國側情報에依하면 長江上流의剿共總指揮 劉湘은剿共困難을理由로 二十四日林森、蔣介石、汪精衛의三氏에게 辭職通電을發하고 成都를出發하엿다고한다

右辭職理由는 蔣介石氏는四川省의 劉湘의勢力擴大를警戒하는 一方西南派와 內通함을察知하고 剿共에要하는 武器彈藥을供給치안함은 勿論이고 다른곳으로부터의 武器輸入도阻止하야劉湘을 困難케하기始作하엿슴으로 蔣介石氏에對한報復으로推測되는데 他方對英借款問題에對한 各方面의攻擊이 熾烈됨에 對하야積極的으로來襲코저함이다 그러나四川拋棄는單純한報復만이아니고 이로서四川의 風雨가 옴지기가始作한것으로 劉湘對中央抗爭은 注目된다

南中에서 滿洲國에 貿易使節派遣

【新京二十五日發聯合】 廣東商人은 滿洲事變以來南京政府의 對滿經濟斷交方針에拘束되엿섯는데 最近上海에서 滿洲과의사이에 滿洲大豆二十萬噸取引契約이行해짐을 機會로同會商에列席하엿든 廣東側代表는 그길에滿洲視察을하고 歸還하엿다 右一行은 豆粕、雜穀의 取引復活을熱望하고잇슴으로 在廣東上海의 日中兩國人으로된 南方貿易使節이數日中에 來滿하기로되여 滿中의 經濟關係는 好轉될것으로期待된다

孔荷寵遂 中央軍에 投降
共軍漸次凋落?

【南通上海二十四日發】 中國共產軍第六軍團指揮官[illegible]個年間에亘하야[illegible]야 그實名을內外에떨친 孔荷寵은 最近討伐軍에게 敗하야 共產黨의 維持不可能을 깨닷게되엿슴으로 秘密히蔣介石氏에 投降狀을送付하고 自己는[illegible]觀察이라는美名下에 共產軍의首都인江西省의瑞金을떠나 南昌에서 中央軍에投降하야 南昌에 護送하엿다 蔣介石氏는孔荷寵의 自發的投降의 誠意를 認定하야 共產軍의 軍狀에關한 報告를 要求함과함께 從來의關係를 一切淸算하고 自己의幕僚에 參加식혀 南昌行營의參議에 任命하엿다 이리하야 中國共產軍陣營은 主要人物을 일허 秋風落葉의觀이 잇다 蔣介石氏의 剿共進展과 함께 共產軍本據의 潰滅을 期함도 不遠하다는 觀測이 有力하게되엿다 그리고 蔣介石氏는 共產軍의首領朱德 毛澤東等의 首級에 二萬圓의 賞金을 걸고 萬若生捕者에게는 五萬圓을준다고 布告하야 討伐軍을激勵하는 一方 共產軍의 投降을 勸誘하고잇다

果然! 重大化한 北。鐵。交。涉。問。題
蘇聯政策의眞意打診
(四) 韓普容

蘇聯政府에서 北滿鐵道를讓渡하려하는 **第一重要**한理由로 普通

一、滿洲國出現에依하야 北滿鐵道의 經濟的價値가極히微弱하게된것

二、產業五個年計劃의 資本動員難에依하야 外國資本獲得의必要를 痛感하게된것

의 二點을 指摘하게된다。 二者中 外國資本獲得의 必要보다도 北滿鐵道의 經濟的價値가 喪失되엿다는點이 더욱重要한 理由로되여잇거니와 經濟的價値喪失이란旣成의 滿克線、敦圖線、工事中의 拉賓線、北**朝鮮三港**의築港進陟、不遠한將來의 局子街=佳木斯線의敷設等 滿洲國鐵道網이完成된다면 北鐵은 此等諸線에 包圍될뿐안이라 滿洲國政府의 意識的 自國產業保護政策에依하야 北滿鐵道의 經濟的價値는 거이 全滅될것이라는 이點이다。

以上指摘한 두가지點이 蘇聯政府가 北鐵을 讓渡하려는 重要한理由中의 하나가 될것은 누구나 推測할수잇는가한다。 그러나 北鐵을讓渡하겟다는 意思를 表示한 사베트聯邦의 「眞意打診」은 그러케簡單히 될바가안인줄아다。 產業五個年計劃에

外國資本

獲得이必要치안은것은안이엿다。 그러나 北鐵을 팔지안으면 안될그러케 窮한程度는 적어도今日의 蘇聯은 免한것으로보는것이 妥當한 觀測이라할것이다。 이것은 最近數年以來 사베트聯邦에서 彪大한資金으로 極東方面의 軍備充實에波及하고잇는 一事에 비추어보드래도 明確히 알수잇는일인가한다。

다음 北滿鐵道의 **價値問題**에잇서서도 그러하다。 北鐵의 價値를 單純한 收入의點으로만 본다는것은 잘못이다。 黑龍江鐵道는 非常히 迂廻하게될뿐아니라 冬節이면 酷寒때문에 運轉上 莫大의困難을當하는것이 事實인以上 西伯利亞鐵道의 重要한一部를形成하고잇는 北滿鐵道는 依然히(滿洲에잇서서는)經濟的價値를 갓고잇는것이다。 經濟的觀察만으로 말하드래도 이러하거니와 極東에잇서서의 北鐵의 政治的意義는(뒤에詳述하려한다) 實로 吾人의想像以上으로 重且大한것이다。

사베트露西亞가 經濟的觀點에서 眞心으로 北鐵을팔려는것이냐? 그러치안으면 政治的意味에서 一時讓渡說로 **難局打開**에利用하려는것이냐? 하는問題는 一國의國策에關한問題이므로 記者의 輕輕한斷定을 容認치안는바이나 그러나 적어도 北鐵問題에關하야 多少의研究가 잇는사람이라면 그가는疑問만은 갓게되는때가 잇서야할것이다。

北鐵讓渡說은 요스음 새삼스러히이러난問題도 안이며 革命露西亞가 처음한말도안이다。北鐵(當時中東鐵道)讓渡說은 이미 帝政時代부터 잇던말로서 그始初는 一九一六年 即 大正五年六、七月頃 大隈內閣時代이엿다。 當時 露西亞가 讓渡하려한다는部分은 中東鐵道南線中 松花江畔에서부터長春(新京)까지의 約七十五哩의線路이엿다。

그러면 웨? 帝政露西亞가 **帝國主義**的目的으로 敷設한 中東鐵道를一部일망정 日本에讓渡한다하엿던가? 此에關한 當時 日本諸新聞(社說)의 論調를 보건대 露西亞가 中東鐵道의 一部를 讓渡하려함은『歐洲 戰爭에際하야 日本이 露國에 보낸 모든援助에對한 感謝의念에서 나온것이다」라고 하엿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그때에 日本朝野가 露西亞의 中東鐵道一部의 讓渡提議를 얼마나 고맙게생각하엿던가를 推想할수잇는가한다。

賣買對象의 呼價는 五千萬圓이엿고、此에對하야 日本側에서본價格은 二千五百萬圓이엿다。 그리하야 價格上差異와 東中鐵道長官홀왓트氏의 強硬한 **讓渡反對**에 演劇은이에閉幕되고마럿거니와、여게서暫間 讀者여러분의 注意를喚起하고십흔點은 露西亞는이와가티 中東鐵道一部의 賣渡를 提議하야 日本朝野의 歡心을사노흔 그機會에 明治四十年에締結된 日露協定을 同年(大正五年)七月에 세번째改締에 成功하야 日本의 軍事的援助下에 歐洲大戰에 猛進하게 되엿섯다는 一事이다。

그後 十月革命에依하야 露西亞는 우리들이 只今보고잇는바와가티 저와가튼 激變을보왓다—君主政體에서 **獨裁政體**에、帝國主義에서 共產主義에。 그리하야 北鐵에 對한 露西亞의 政策、觀念도 달너젓다 한다。 即昨日 本欄에 引用한바와가티 昨年六月 北鐵交涉開始當初에 蘇聯代表가 中東鐵道는 帝政政府에依하야 征服的帝國主義的目的으로 建設된것으로『如斯한 目的은 蘇聯政府로서는 갓지안은바이며 또 가질수업는 일이다」라고 言明한것은 革命露西亞의 北鐵에對한 政策又는觀念을 表示한것으로볼수잇스나 國際外交的 會議室이 文明人으로서 公公然히 거짓말할수잇는場所이라하면 아모리 蘇聯邦의 建國精神上 資本主義諸國家의外交方法과는 다르다할지라도 現下의 諸情勢에 鑑하야 **外交席上**에서말한 蘇聯代表의말을 그대로盲信한다는것은 생각할餘地가잇는點인가십다。

(次回에完結)

米蘇間債權交涉 決裂危機에 直面

【華盛頓二十四日發聯合】 米蘇兩國政府의 債權交涉은 過般莫斯科로부터 華盛頓으로옴겻는데 國務省 蘇聯大使트로야놉스키－氏間에 交涉中이든바 前後一個月에 亘하엿스나 容易히 協定成立될希望이업서 決裂의 重大危機에 瀕하게되엿다 트로야놉스키－大使는 時히 說明을發하야 蘇聯政府가 重大讓步를示한結果 右讓步를基礎로 解決案이成立될것이라고 期待하엿스나 蘇聯政府가 새로운 借款을要求하고 讓步치안홈으로 會商은重大暗礁에 逢着된것이라고解釋된다

蔣氏의 藍衣社幹部 彈壓益益露骨化

【南京二十四日發聯合】 蔣介石氏는 今回藍衣社에對하야 一切活動停止를 命令하는同時에 藍衣社의幹部인 賀衷寒(國民政府訓練總監部國民敎育處長) 以下十七名을 廬山에 監禁하엿다 蔣介石氏는 藍衣社가 最近其勢力이 擴大됨에 伴하야 內紛이 續發됨으로 搗亂派에 一大彈壓을 行한것이다

七省要人會合 中央擁護를通電
西南派牽制의目的?

【南通上海二十四日發】 蔣介石氏의 大總統就任을 決定할第五次全體大會의 接近에 伴하야 西南派의 反蔣通電이 流布되야 中國內爭이 激化되여보이는 此際 江蘇、浙江、福建、安徽、河南、江西、湖北의 七省政府首腦部及軍政要人은 二十三日附로 中央擁護通電을 發하야 國內紛爭의 時機가아니다 一致團結中央을擁護하라는 通電을 發하야 蔣介石氏擁護意向을 披瀝하엿다

宋哲元氏 蘇聯援助拒絶

【電通承德發】 情報에依하면 蘇聯側은 察哈爾省主席宋哲元에 對하야 年來의 對日滿積怨을 풀기爲하야 抗日滿政策을 取하면 援助하겟다고 申請하엿는데 宋氏는 「喜峯口作戰當時의 積怨이 업는것도 아니나 目下何等의 感情이업다」고하야 此를 拒絶하엿다한다

歐洲政局打開次 佛外相羅馬訪問
十月頃에 巴里出發?

【巴里二十四日發聯合】 獨墺兩國을 에워싸고 歐洲의政情을 混沌한狀態를呈하고잇는 此際歐洲政局의 現狀打開策에 關하야 佛外相바르투氏는 今秋羅馬를 訪問하고 親히뭇솔리니首相과 要談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外相은 十月頃巴里를出發하야 羅馬에서 뭇솔리니首相과會見할터인데 그日程은 아직決定되지안햇다

南朝鮮水害奏上 黑田侍從

【東京電話聯合】 陛下의 御命을 拜受하고 朝鮮水害를 視察하고 罹災者에게 慰問의 聖旨를 傳達하고 二十三日歸東한黑田侍從은 二十五日午前七時二十五分上野驛着 那須御用邸에伺候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南朝鮮水害狀況을 詳細奏上하고 復命한後 御下問에 奉答하고 御前을 退下하엿다

全猶太人의 獨品非買決議

【주네브二十四日發聯合】 國

橫田敎授의 放送이 問題化

【電通東京電話】 海軍側에서는 國防意義를 目前에 압두고 全國民의 國防意識이 尖銳化한 이지음 지난二十二日午後九時東大法學部敎授橫田喜三郞氏는 AK로부터 放送한 靑年特別講座 「世界情勢와 日本의 地位」라고 題한 講演中 世界平和論을 主唱하야 國際聯盟과 軍縮을 支持하라는 觀念을 強調하엿다하야 聽取者로부터 海軍當局에 頻頻히 投書가 들어옴으로 當局도 이를 重大視하야 直時AK에 對하야 當時의 講演內容全文의 提出을 要求하엿는데 한後境遇에 따러서는 AK 又는 監督官廳인 遞信省에 嚴重한 警告를 發하거나 又는 그 全文의 取消를 要求하고 或은 橫田敎授에 出頭를 要求하야 그 直意를 聽取할方針이다

政友三總務 岡田首相訪問

【電通東京電話】 政友會의 加藤、山口三總務及若宮幹事長은 二十五日午前九時首相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二十二日總務會에서 決定된臨時議會召集要求를 正式으로提示하야 黨의主張을 詳細히 說明한바잇섯다

明年度의 赤字는 增稅不斷行主義
部分的課稅도可能性이殆無
藤田、後藤兩相懇談

【東京電話聯合】 明年度豫算編成에際하야 어떤程度의增稅를行할것인가하는데 關하여는 藤井藏相이 高橋藏相時代에熱烈한增稅論者이엿슴에鑑하야 床次遞相、內田鐵相等은 郵便切手及葉書價引上、鐵道益金의一般會計繰入等을增稅와併行하야 行할것이라고主張하고잇서豫算編成期의切迫함에따라各方面의 注目의焦點이되여잇는데 二十四日의閣議散會後 後藤內相은 藤井藏相과함께 首相官邸에남어 北陸水害復舊費及增稅問題에關하야 意見交換을行하고 다시 後藤內相은 岡田首相과會見하고 種種意見을開陳한後 辭去하엿다 그後岡田首相은 賀屋主計局長을招致하야 最後의歲出歲入의現狀에關하야 詳細說明을聽取하엿는데 그는政府의增稅에對한態度를 決定할準備工作이라고볼수박게업는데 政府首腦部의 意向은國防費의增大에 作하야軍需工業이異常의活況을呈하야 巨額의利潤을내이고잇슴에反하야 農民及一般中小商工業者는窮境에빠저잇다 이不公平한凹凸景氣를 平坦化하기爲하여는 軍需工業의 利潤에對하야 어떤程度의增稅를 하자는論도잇스나 이軍需工業에對한部分的課稅는 租稅體系를混亂케할念慮가잇서 稅制整理를 行할境遇에 非常한支障이될으로 이點을考慮하야 部分的增稅는實際問題로 거진不可能하다 農民의貧擔이 過重한現下農村現狀으로서는 擔稅力을가진者에對하여增稅하는 一方擔稅能力의微弱한 農民에對하여는減稅를行함이必要하나 不遠한將來에稅制大整理를 加할터임으로 只今突然히 部分的增稅는할것이아니라는 意見에一致된模樣이다

米人宣敎師가 五個新島發見
東印度群島方面서

【電通스프링필드、마사추세츠州二十四日發】 西南太平洋方面을 巡航中이든米國宣敎師 어빙존슨博士는 東印度群島方面에서 五個의新島를發見하엿다는旨를 스프링필드에잇는博士의 親戚에게打電하엿다 右電報는 존슨博士가英領北보르네오 싼다칸港에서 發한것으로 此에依하면 博士는 英國委任統治領솔로몬群島(東經百六十度內外)로부터 보르네오島(東經百十五度)에至하는 熱帶海上即日本委任統治領에 南接한延長四千粁의 區域에서 아직如何한 海圖에나記載되지안흔자못 큰 島嶼를五個發見하엿다 右는 同方面에 領土及委任統治領을가진 日英蘭佛等의 어느나라에나所屬치안은셈으로 博士의 見解에依하면 自然北米合衆國의領有에歸할것이라한다

倫敦條約二年延長
米國政府贊成意向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 權威者側에서 仄聞한바에依하면 一九三五年의 海軍會議가豫備會談에서 이미非常한困難을豫期하게된形勢에鑑하야 倫敦海軍條約을二個年延長함이 어떠하냐는論이 主唱되는데對하야 米國國務當局은 이지음新條約을締結함이至難하다는見解下에 延長說에贊成意向을 表示하고잇다 英政府側이 이미華盛頓에對하야倫敦條約을 二個年間延長할旨의內提議가잇섯다는 風說에對하여는 否定의言明을하고잇다 또延長論에對하야 日本이 強硬히反對할것은 一般이 豫想하는것이다

米穀對策調查會 委員卄五名以內

【電通東京電話】 米穀對策調查會의 人選은 目下河田書記官長의 手許에서 進行中인데 人員은 米穀統制調查會와 同樣으로 二十五名以內로하고 其外에 臨時委員數名을 任命하게될模樣이다 그리고委員은 貴衆兩院으로부터 各十名을 擬定인데 衆議院은 政友六名、民政三名、國同一名을 配定하기로되엿다 關係各廳으로부터는 內務、大藏、商工、拓務等各政務次官의[illegible] 大藏、農林事務次官、農林參與官、政務總監、滿洲國事務長官은 臨時委員으로任命될터이다 그리고其外에 學識經驗者로부터 數名의委員이 任命될모양이다

瓦房店署長等 領事館檢事拘引을拒絶
抗爭問題遂表面化

【大連二十四日發聯合】 營口領事館檢事事務取扱은 二十四日未明瓦房店警察署長以下警官十八名에對하야 拘引狀을發하고 檢擧하야 營口에同行키를 强要하엿는데 署長等은이를不法이라하야 拒絶하엿슴으로兩者의 對立은 드듸여 表面化되엿다

이는 지난七月十二、三日頃 關東州營兩站의 警官密輸事件에關連한當時滿鐵瓦房店驛倉庫에勤務中인 二名을逮捕하엿는데 營口憲兵分隊에서는 이를不足다고하야 八月三日瓦房店一帶의 檢擧를 斷行하고 嚴重調查한結果二十餘名의 被疑者를營口憲兵隊에서 取調한後 營口領事館에 護送하엿다 營口領事館에서는 事件의內容에 鑑하야 檢事事務取扱으로 外務書記生을 任命하야 警察事務를管掌식혀 徹底的으로 關東警察官의非行을 糾明코저 取調를繼續中이다

蘇暗號電報使用 北鐵陰謀重大化
卄三日또八名逮捕

【電通哈爾賓二十四日發】 滿洲國當局의 北鐵管理局內整理는 其後繼續하야進行되엿는데 二十三日又復社務處、工務、其他로부터 八名을逮捕하고 哈爾賓에서 蘇聯邦從業員의逮捕는 何時에靜止될는지 알수업는形勢에處하여잇스나 이檢擧는北鐵東部線에서 列車運行妨害陰謀에關聯되여잇고 其裏面에國際共產黨이 策動하고잇다는事實이暴露되여 兩三日前에는暗號電報로서 運搬材料、建築物破壞의指令을發하여 問題는더욱重大化하야 檢擧는管理局의中樞에까지及할터로 其推移는 자못重大視되여잇다

東部線貨車襲擊

【哈爾賓二十四日發聯合】 二十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北鐵東部線二層甸子 阿城中間을進行中이든 一面坡發哈爾賓行貨物列車는 突然反滿軍約四十名에게 襲擊되여 貨物掠奪을 當하고 乘務員露人二名이拉致되엿다

八面鋒

◇國策審議會의設置云云은 擧國一致觀念의 強化策。

◇大臣도안내스니 委員도못낸다함은 政友의體面維持策。

◇言論自由의米國에서 通信의統制策을講究。

◇「무레인추러스트」로부터 「뉴－스추러스트」로轉向인가。

◇活動寫眞작란을하다가 七歲兒를 刺殺。

◇무서운模倣이라할가 놀나운影響이라할가。

◇學校에、家庭에、社會에、크게울니는 警鐘의하나。

號外發行

碧潼警官射殺事件으로 號外를 發行햇습니다

水虫 たむし いんきん 其他皮膚病に
小林スムシチンキ

H博士氏가硏究所의結果 發見創製한本劑의主要은 「生活한細胞或은黴菌의外로보이도被膜을浸透하야서其體內에侵入하고또絲狀菌의發育을抑制하고또이것을斃死시켜서皮膚를刺戟하야表皮의角質을增進한然後에病皮를剝脫식히는것은本劑의特長으로서그우에數種의配劑의妙味는殺菌收斂消毒並保覆作用을一層適切하게하오

따라서 가려운、압흠을制止하고指間의龜裂及局所의潰爛面을消毒하야新健皮의再生을促進하고皮膚疾患를治療하는것이오그우에더本劑는無色의液體로곤곤치안코塗布하면極히爽快하오、

藥價 二十錢 三十錢 一圓五十錢
藥店百貨店에잇슴

株式會社 小林大藥房 本舖
大阪京町堀二 名古屋廣小路

騷然한繁茂期의國境
碧潼對岸에二百兵團
越境中巡査二名射殺
警官隊越江追擊交戰

【警務局着電】 평북벽동군 룡연경관주재소(碧潼郡龍淵警官出張所)의 순사두명은 이십사일 대안에서 이백여명의 무장단을만나 총살당하엿다 사건의 경과를 듯건대 전기 경관출장소 대안 만주국 관전현전자구(寬甸縣碾子溝) 만주국인부호의집에 무장단으로부터 금품을제공하라는 협박장이잇서 만주국인 부호는 신변이 위험함으로 룡연 경관출장소 부근으로 피난중 전기 경관출장소최찬길(崔燦吉)과 우영훈(禹永勳)량 순사는 대안을 내사코저 이십사일 오후한시 오십분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약십정가량갓슬때에 돌연 숩속에서약이백명의 무장단이나타나며 일제사격하야 최순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우순사는 중상을당하야 일단 돌아왓다가 당일오후오시오십분에 사망하엿다 급보를접한 벽동경찰서에서는 부근경관출장소 순사경부등 이십여명이 대안에건너가 무장단을 추격중으로 금이십오일에도 교전하엿고 계속 추격중이라한다 무장단의 정체는아즉알수업다

金高等課長急行

평북경찰부김(金)고등과장은 이십사일밤 부하 두명을 대동하고 정주(定州)로돌아서 현장에 급행하엿는데 방금 압록강연안은 수해로자동차 교통이두절되여 경관대의활동이어려운모양이다 (以上號外再錄)

機關銃隊出動
兵團을一擧擊退
警官隊繼續追擊中

【新義州支局特電】 월경중의순사두명이총살당한급보를접한 벽동경찰서에서는 룡연출장소에서 순사부장이하 팔념을더리고 출장하고 출장소에서도 세명이출동하야 응전한결과 이십사일오후칠시사십일분에드디어격퇴하엿다 그리고 무장단은하루두(下漏洞)황초구(荒草溝)방면에도망하엿다 벽동서로부터 강(姜)경부이하 십사명은 다시출동하야 추격중이다

海外團體關係嫌疑로
普專生一名引致
海州警察署緊張

【海州】 지난십오일경해주경찰서 고등계에서는평북정주(定州)출생으로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맛친리모(李某)(二三)란청년을 검거 인치취조중이든바취조에 따라엇던단서를 어덧슴인지 동서 대교(大橋)고등계 주임은 아연긴장하야 지난 이십일 도고등과장을 방문하고 장시간 밀의를 거듭한 후 고등과의응원을어더 문(文)형사부장과 이십일일 상경활동한결과 경성보성전문학생(普專學生)김건억(金健億)(二三)을 검거하고 외일명도 해주서로동행을구하여 데리고왓다 사건의진상은 절대비밀에붓치므로 자서히알수업스나 미들만한 소식에의하면 해외에잇는 모사상단체와엇던련락이잇는혐의라고한다

東門署에窃盜犯

종로오정목 륙십오번지 김룡운(金龍雲)(元)은 지난사월 이십륙일오전 열시에광화문 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서 위체로 송금하려든 엇던사람의 현금삼백원을 빼슨일을 비롯하야인사동(仁寺洞)일백 삼십칠번지 안창희(安昌熙)집에 칩입하야 구룡 필욕시게 한개와 상당금반지하나를 절취하고 다른곳에도사오건절취사실을 취조하는 동대문서사법계원에게 자백하엿다

全北警察또上京
左翼作家等檢擧
大和田高等課長等上京하야
新建設社事件擴大

얼마전부터 전북경찰부 고등과에서 검거취조중인 좌익극장신건설(新建設)사건은 다시 확대되는모양으로서 이십오일 아츰에 전북경찰부의 대화전(大和田)고등과장은 마도(馬渡)량(深)느형사부장을데리고 상경하야 위선경무국을방문하고 지금까지의 취조경과를 보고한후 마도、두누형사부장은 다시종로서 고등계에나타나서 동계혹소(黑沼)주임과 밀의한후 목량(目良)부장등 다수계원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계동(桂洞)방면에 출동하야 활동하드니 좌익소설가리기영(李箕永)송영(宋影)량씨를 검거한후 그가택을수색하고 적색서적 백여권을압수해왓는데 시내에서 검거는더욱확대될모양이다 이번신건설사건의 내용은 일체비밀에부치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좌익예술운동의리론적근거를토구하는독서회비슷한결사를가진혐의라한다

大連의數百婦女
血汗의誠金醵出
關東州朝鮮人會員들熱誠으로
二百餘圓本社寄托

대련시(大連市)에 잇는 관동주조선인회(關東州朝鮮人會)에서도 삼백사십명의회원이 일제히분발하야 현금 이백이십원을수합하야그회 리사장강안득(康安得)씨로부터 간곡한편지를첨부하야본사로 부처보냇다 이와가튼 거액의구제금을 내이들가운데는 만리이역에서 육체로나정신으로나 더욱이 낫과밤으로만흔 고통을겪고잇는 녀성동포가 태반으로한푼두푼 벌기어려운 피와땀을짜내인 정성을거둔것으로 그들의 한푼이야말로부자의 천만금만못하지 안흔것이라할것으로 그부녀들의 미거에놀라지안흘수업다

大阪共和、平和兩會
各二十餘圓義捐托送

대판시 동성구중진빈동(大□□)사정목 륙십일번지공화회(共和會)원일동은 수해지동포들의 참상을듯고 도저히 그냥잇슬수업다하야구차한 자기네들의 경우를불고하고 현금이십이원칠십전을 수합하야 본사로 보내왓다

◇

대판시서성구남개(大阪市西城區南開)오정목팔번지평화회총본부(平和會總本部)에서는현금이십칠원 구십륙전을 거두어보내고 또대판시서성구진수정(津守町) 삼백팔십삼번지 평화회지부에서도 현금 이십오원칠십구전을 수합하야 본사로보내왓다평화회에서는다음과가튼눈물어린편지를첨부하야보냇다

◇

(前略)방금 리재동포들을 구원해낼방도는 조선안에 잇거나 박게잇거나를 물론하고 일반형제자매들의 뜨거운동정을 합하는데 잇다고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머니를터러서 약소하나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처보내오니 불상한리재동포들의 하로생활비에라도보태도록해주소서

八月廿三日 平和會總本部

金浦鹽倉監理
敎會서七圓

경기도김포군 양동면염창리(金浦郡陽東面鹽倉里)감리교회(監理敎會)에서도 삼남수재구제의연금품을 다수수집하야 보냇는데 특히동교회의 전도부인박현옥(朴賢玉)씨와 엡윗청년회장황분매(黃粉梅)씨의 두분이 전심전력으로 리재민의참상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동시 종교인의 뀌기가잇기를설파한후 현금칠원륙십팔전과 의복 삼십일건을모아서본사로기탁하얏다

江華三百農村振興會
義捐募集에活動
大活動하야本報支局에寄托
十餘歲饋楔도奮起

【江華】 아름다운동정이매처진정의는 날로거듭할사록 열이더하야지는바 강화에서 본보지국을통하야날마다올나가는그열정은수사자가중명되는바전강화에잇는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삼백오십여단체가일제히동원을하야 명렬한활동을하고 잇다즉 하점 양사부내동부(河岾兩寺府內東部)와밋 대묘(大廟)진흥회에서는동정주머니를만들어가지고 모은금품을 제일착으로본보강화지국에 의탁하야 보내달라는 부탁이잇섯는데 과연그열정은 절정을엇우엇고 십여세찬개(歲饌楔)의 팔백여개원이 총동원하야 일제히그들의 모든구제금을 본보강화지국에의탁하얏다 압호로의 그들의동원은 과연그절정을 일우울것은 물론이요 이와가티 진흥회가동원홈하며 세찬개가 동원을하얏슴는 초과목적사실도 일반의칭송은더욱놉다

傳染病診斷밧고逃亡해

이십오일 오전여덜시경에 시내황금정(黃金町)륙정목부민병원(府民病院)에는 자칭 시내봉익동(鳳翼洞)이백사십륙번지 조봉의(趙鳳儀)이라는 사람이 알튼그아들 종호(鍾浩)(七)를업고와서 진찰을청함으로 진단한결과『지후테리아』로판명되여 곳격리입원식혓나 그랫드니 동열시경에 조봉의는 알튼아히를업고 그대로도망하엿다 급보를바든 본정서와 종로서에서는 위선그의집으로 쪼차갓스나 그러한번지와 사람은 전연업슴으로 방금각방에 수배하야 그들의행방을찻는중이다

京城府人事大更迭
根本的廓清斷行說
現伊達府尹에게도企待難으로
府會압두고暗雲低迷

경성부청 적년의의 비정과폐단은방금 부회상임위원회에서 과초중인보고서의 발표와 아울러열리는 림시부회와 경기도에서 검사중인 경열보고의 끗남을기다려 경성부의근본적 개혁을착수하리라함은두보한바어니와이와가튼획기적대개혁을압두고세간의주목은 이곳으로 집중되는 이때 현부윤 이달사웅(伊達四雄)씨에대한 일반의긔대는크지못하야 결국새로운 부윤을마지하야가지고서야 소기의 개혁을보일모양이다

경성부의비정과의옥이모다전임자때의일이지자긔의알바가아니라는듯한 태도로 사람을대할뿐아니라 일반청원을 대함에도재래청원은 마치형사 피의자를 대하는듯한태도를가저현재경성부리원간에 부윤에대한 공긔는퍽으나 화긔를 일어음한공긔가저미(低迷)한다

그뿐아니라 이달씨가 온다음에도 처음에마차민영안(馬車民營案)의철회와 수정후재상정으로부인벽두부터실패가잇고도제이부특별경제(第二部特別經濟)회의때에도 매동(梅洞)보통학교와 죽첨(竹添)보통학교 강당문제로 파란이일엇든것도 부결하기로되여 제이독회(第二讀會)에까지넘어간것을 부회원들이 이달씨의면목을 생각하야다시 번복가결하야주어서 부회규측을 어긔여준 일까지잇섯고」 그후에는 금고도난사건을 위시하야 수원지 고철불증에 신철놀장의사건、위생과분실의 마량협잡(馬糧挾雜)사건등등 이달씨가 회피하려야 할수업시 책임질일이 만타 이가치되여 이달씨에대한 긔대는일반적으로박약하게되엿다

한편 이와가튼것을들어서 부민의여론도 여론이려니와 부회원으로 그중에도 상임위원등에도 현부윤에게는 경성부청대개혁에대한 긔대를 가질수업다는소리가 들리는데 요지음에일으러서는 총독부방면에서도 경성부의 구폐를개혁식이려면 계장(係長)이상인물의개질(更迭)을 보여야겟는데 이달부윤에 대하야서는 큰긔대를 할수업슨즉이달씨는영전(榮轉)의형식으로한가한 지방의지사(知事)를 내보내고적당한 후임자를 새로마저서개혁에 착수하리라는말이 전하는데 과연엇더한 인물이복마전경성부를 확청식이는 큰역할을마타올른지 주목 된다고한다

亂局收拾에는
適任이안이다
某京城府會員談

이달부윤은 그개인이 어떠타는것이아니라 인물이 우유(優柔)라고할는지 무에라고할는지 엇잿든 치국(治局)의 명부윤은될지언정 란국(亂局)의 수습자는될수업습니다 그럼으로경성부의 적년구폐를 개혁식히는데 이부윤에게 큰긔대를갓기 어렵다 이달씨는 자긔가넘우조흔사람인만큼 남이나부하를 어거하는데 수단이갈지못하야 현재 부청리원간에 환영을못밧는현상이니까 더말할것 업겟지오 그리고 자긔는 전임자시대의비정이라고 자긔의책임을 무거히 녁이지안는모양인데 그것이 도를지나처서 자긔가온 이후의 추태 가령 금고도난이라든지 마량사건이라든지 기타를도 책임을 잇는것을 보면얼마나악의업시 조흔사람인것을 알수잇는동시에 사람난조화지 그에게 어면수단을 요구할수 업다는것도알수잇습니다

鍾路密輸事件
檢擧는擴大

종로서 사법계에서 착수한금밀수사건은 밀경확대되여 검거는 신의주(新義州)안동현(安東縣)방면에도 비칠모양으로서이십삼일밤 급행열차로 두명의형사가 그방면으로 급행하엿다 밀수금액은 지금까지 판명된것만도 약팔만원가량에 달한다고한다

脫獄囚杳然

이십사일 오후경성 형무소 벽돌공장에서 탈주한 죄수박종석(朴鍾石)의 행방은 형무소와 각경찰서에서 련합으로 련근각지를수사중이나 탈주한지 벌서일주야를 경과하여도 전연그종적을 알수업다한다

羅津滿鐵用地價
總督府調停도不調
滿鐵側에서不應하는關係로
政治問題化할形勢

라진(羅津)이 종단항(終端港)으로 결정이되리라하야 종단항으로 결정되기전부터 각종재벌이 흔전을하야가며 토지를매수하고 잇든도중재작년 팔월이십삼일에 종단항으로 확정되자 그부근의지가는 평당(坪當)십전 미만이든것이 일약이삼십원으로 폭등하게되엿섯는데 만철(滿鐵)측에서는 시가(時價)인고가로 매수하지안코 싼갑에매수키로 한까닭에 지주측과 만철측이정면으로 충돌이되고 총독부에서조정하게되엿섯다 그런데 최근에이르러서 만철측은 총독부의조정안을 일축하고 불응하는까닭에 결국 이문제는총독부의 사정안(査定案)이 나오게될것이오 따라서 정치문제화하게되엿다

이제문제의 경과를 들어본다하면 종단항이 결정되기전에는 평당이 되지아니하는 지가(地價)가 일단종단항으로결정되자 그측후로부터 십원이상으로 폭등하고 날이갈사록 천정을몰으게 올나가서평장안 토지경기를 현출하게되엿다

그런데 만철에서는 자기네가 반드시 필요한 륙십삼만평을 최고 이원에서 칠십전까지에팔나고 지주에게문서로써 작년십이월 십칠일에 교섭을개시하엿든바 지주측은시가의 일할도되지아니할것을 그대로 팔나는것은 만철의 무리한주문이라하야 그교섭에 불응하여왓다 그결과 토지수용령을 함북지사에게 만철측에서 요구하야작년팔월일 함북지사의결정을엇게되엿다 이에지주측은 더욱분개하야 만철측의 행동을 비난(批難)하게되는 한편으로는 총독부에 진정하야 사정을요구하게 되엿든바 총독부에서는 지주의의사를 어느정도까지 존중하야 조정안을 제출케 하엿든것이다 현재에 문제되는지주는 이백사십칠명으로 그들이 소유한토지는 륙십삼만평인데 이지주들중에서 금한일로 만철측안에승낙한 사람이 일백칠십팔명인바 이들도 나머지 지주의것이 결정되는가격대로 팔아가기로 하엿든것이다 문제가 이에이르게되자 당시 정우회(政友會)의대의사이든 수옥영부(守屋榮夫)씨등이 조선에건너와서 알선을하야 총독부의 조정안도 급속하게 되엇든것인데 이번에 이안이 일축을당하게 되엇슴으로 금후에는총독부의 사정안이 또 그뒤를 따를것이오 또그뒤에는 동경으로 이문제가 옴겨가서정치문제화할것갓다하야여하간만철측이지시한가격으로는조착되지아니하고 결국 매평삼원정도로서문제의 해결을 보지아니할가하는것이일반의 추측인바 과연이토지문제의 귀결이 엇지될는지주목을더욱 끌게되엿다

就職難으로
靑年이飮毒

이십사일오후 여덜시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륙십일번지 중국인호떡집단보산(段寶山)의 집에는청년한명이드러와서 호떡을청하드니 갑작이양재물을 찻잔에푸러서 드리켜고 민함으로 그집사람들은 소관 종로서에 급고하야 그서에서는 서원이현장에 달려가서 곳정구충(鄭求忠)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가한결과 위중한생명은 겨우 건젓는데 조사한결과 그는강서군함종면 고경리(江西郡咸從面古京里)사백륙십구번지에본적을둔 문병찬(文炳燦)(二四)으로서 직업을차저 얼마전에 상경하엿스나 도모지취직할길이 업슴으로 이를비관하고 이십사일오후다섯시경에 죽첨정(竹添町)일정목 오십삼번지 조병현(曹秉賢)의상점에서 양재물을 사가지고 자살을계획한것이라한다

家屋修理中
人夫三名死傷

【鐵山】 지난이십삼일오후두시경 날근집을뜻다가 일명은즉사하고 이명은경상을당한일이 잇섯다 철산군철산면중부동에 거주하는 엄일봉(嚴一鳳)(元)은 그날그날의 품파리로 생계를하여오든바 지난이십삼일 철산면중부동 황녕달의 날근초가를 수축하다가돌연가옥이 문어저서 즉석에서무참이도즉사하고 남어지두명은두부에 경상을당하엿다 한다

爆彈製造를準備든
重大犯八名을檢擧
東京等地와奉天에도連絡된
民族主義系直接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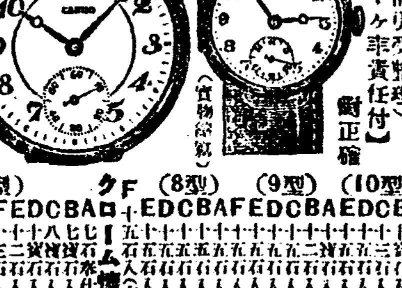
【平壤支局電話】 평남경찰부 에서는수일전부터 비밀히 활동을개시하야 고등과수야(狩野)경부와 김(金)형사는멀리봉천(奉天)까지출장하야 리모(李某)라는 청년을붓잡아오고도명고옥(名古屋)경찰서와동경(東京)경시청으로수배하야 명고옥에서 내명、동경에서두명을붓잡아오고또평남안주(安州)에서한명을붓잡아다가 엄중취조중인데붓잡힌 인물은김귀옥(金貴玉)、리응률(李應律)주용려(朱容麗)외 다섯명으로 모다여덜사이며 그들은 모다 안주공립농업학교 출신들로 민족주의비밀결사를 조직한향양으로 해내해외에서 서로련락하야 동지획득에 노력중이엿스며 그들의목적을달할 준비공작으로 폭탄제조방법을 연구하야 그것을 실제로착수하려하엿스며 최후수단방법으로 과격한직접운동을 이르키고저 하든중에 그만탄로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高氣壓은 日本의南海上과中國北部에퍼지고잇서 그勢力은弱하고 朝鮮은兩高氣壓의사이에잇서 氣壓配置는不安定하다 南朝鮮의內陸에는小低氣壓이잇다 全朝鮮一般은호리고昨日은處處에 소낙비가잇섯다 明日은호리고 日氣가낫브겟다

氣溫 昨日最高 二九、四 今日正午 二六、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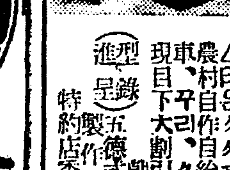
感謝

投賣急告
現行市價四分의一
(某外國商館滯貨處分品引受整理)
【十ケ年責任付】
時間絶對正確
瑞西新型 持製 懷中時計

VT (16型) SMLKHFEDCBA ク F (8型) EDCBAFEDCBAEDCBADCBA (9型) (10型) (11型)
[illegible]
◇是非一度御試用を?
「代引送料一個四十錢」
△前金御註文ハ送料本社デ負擔致シマス
△御送金ハ振替、小爲替、切手一割增シ可
東京市中野驛前 鈴木合名會社 時計部 振替東京九九八六番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官廳銀行會社商店簿記係計算係事務員養成●晝夜新學期開始
●學則要郵券●寄宿及電車通學割引乘車便有●太平通大漢門橫

實踐タイピスト女學部 生徒募集
●英文、邦文科卅名●商業科(簿記珠算)課外敎授●卒業就職紹介
●新學期開始●校舍擴張●太平通大漢門橫(電本三九四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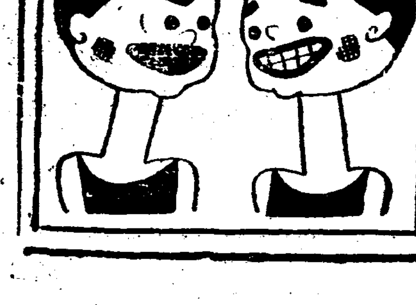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本社는今般數萬圓의大資를投하야 最新式機械를設備하고左記各種油類를製造하야 地方販賣特約店을募集하오니 新聞名記入三錢切手同封問議하시오
製造種目 참기름(胡麻油) 冬柏油
塗油大豆油白紋油其他油類油粕
製造元 平壤府薛岩里 共成社製油株式會社
電話一八三三番、一三七四番 振替京城一七、八七〇番

新案特許 五德式絲捲機

○印은꾸리감는것
×印은製絲한ワク
△印은クダ巻キ한것
農村自作自給의福音인五德式(製絲、絲車、꾸리、クダマキ、삼모동) 絲捲機出現目下大割引賣出
(進呈)型錄 五德式絲捲機 製作販賣所 朝鮮咸南新興郡邑內 朝鮮工産社
特約店委托販賣店至急募集

京城 金
金銀 地金 分析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初驗速한 림질
리베ー루
內服數時間後에青色尿가나오며
尿道의淋菌死滅하야放尿와함께排泄됨
그럼으로止膿이되고痛症이速散함

改正値段 五十五錢·卅五錢·廿五錢
어느분이
仁丹齒磨로다그섯습니다가
고흔皓齒는
얼골全體를明朗히하오



イマヅ蠅取粉으로
犬猫蚤、진드기
문제업시全滅
벼룩、진드기、이等외잇는病所에イマヅ蠅取粉을뿌려、문대두면全滅되오 第一싸고簡單함으로이에限하오

イマヅ蠅取粉은이外에파리는勿論、南京虫、蚤、毛虱、蟻、油虫、又는牛馬虱、鷄虱等의驅除、衛生大掃除時殺虫退治나惡疫의豫防等用途廣히되고、各家庭에一罐은꼭必要。到處藥店에販賣但無効類似物잇스니꼭イマヅ라指定하시오。品切時는 大阪大仁本町三 今津化學硏究所에

現代人の愛用に 防毒に 産制に
ハッキースキ ○感 そのまゝ

二十五日正午大公開 メトロ二大名篇の獨占封切!!
上映順
M·G·M·特作日本版
監督 エドガ!·セルウィン
主演 フイリップス·ホームズ
男子戰はざる可からず 八卷
非常時とは何ぞ?本映畫にて再び認識を新にせよ!!再び大職勃發の曉果して此の容襲!?之の慘禍にたへる準備ありやいなや? 敢て京城四十萬國民同胞に問ふ
M·G·M·超特作日本版
監督 ジョン·フォード
主演 ウオレス·ビアリイ
肉體 拾卷
名篇チャンプ에 이은 慘劇の波止場
に次ぐ名優ビアリイのダイナミックな熱演とカレン·モーレイの躍進的堂堂たる名演技にて成るビアリイ主演映畫中の白眉篇
次週待望裡に堂堂大公開
△晩餐八時△漢夜中の處女
明治町一 電本一三一〇 浪花館

八月二十五日부터大公開!
폭스會社特作全發聲猛獸大活劇
젠 구 래 이 氏 原作
西部의放浪者
루이스킹그氏監督作品! 猛漢조지오부라이엔氏主演妖花모린오사리반嬢助演武裝乘馬隊의猛襲激烈한銃戰!!冒險! 亂鬪! 飛躍! 陰謀! 悽慘! 戰慄! 이것이本篇에點綴된로맨스다폭스自慢의冒險篇의白眉!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킹그비도아氏大作品!
참 프
巨星웨래스비아리氏天才적키쿠파男 主演
次週豫告 蒼白한眼瞼양그아메리카乙期特初秋銀幕에登場할朝鮮名畵 七番通小事件 主演羅雲奎氏期待하라
長橋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新體詩와 그詩形에關한私見 (三)

崔文鎭

이와가튼 機械的韻律이 나혼快感과 그內容과는 確實然 서로分離되며 各自 獨立되히 總에잇슴으로 이것은 單純히 詩形에 담기여잇는 散文으로 봄이 適當하다

【眞正】한詩는 千言萬語를가지고라도散文이 잘表現할수업는境地를잘表現하는데 잇는것이다 詩는 散文으로 飜譯할수업는것이다 換言하면 散文이 表現할수업는 境地를 잘表現하는것이 詩이다 即 散文의表現力이다하는곳에 비로소詩가생기는것이다 여게 韻律의特殊한힘이 움직이고 잇는것이다 이韻律的效果가 極端으로音樂萬能主義的詩人이 主張한것과가튼 重要性은업스나 詩全體의內容과는

【重大】한關係를맷고잇는것이다우리들이 吟詩할때에 우리의知覺에 直接感觸되는것은 言語의聲音으로부터오는 이韻律에말미암음이다 萬若우리가 口吟하지안코 속으로 소리업시읇드라도 이것은 再現觀念으로 直接 知覺에接近하려고하는──美化의 世界에 사람의靈感을 誘導하는것이 이韻律의 힘을빌지 안코는 到底히이루울수업는것이다 이韻律自體가美를 表現하려고함에는또만美感의原則을 쫏치안허서는안된다 이美感의 原則은後天的으로된 規矩가아니오 美를探求하는

【人間】의本能──審美的本能에賦與한科學的 名稱이다 美感의原則으로는自然히 統一을要하게되며 其統一은單一의 統一이아니라 多樣의統一이되여야 할것과多樣의統一은 또한調和를일허서는안된다 詩人의世界가美의創造의 世界라고할진대 美의創造는 이玄妙한韻律로부터오는것이다 散文詩라는말은 몃몃해 젼만하여도 들어보지못한것이 近者에이르러서는 우리文壇에 詩를쓰는사람처노코는大槪 散文詩를쓰는사람이만라그것은 詩脚 韻脚等 까다로운 詩形에 얽매우지안코自己가

【表現】하려는詩想을 自由自在로散文體로 驅使할수 잇는까닭이다 다시말하면 詩라는領域內의嚴格한範疇와 調理잇는節次를 밟지안는까닭이다 普通우리들이 詩, 散文이라하는말은律語로 格調에맛게쓰는것을詩라하며 律語의形式을밟지안코쓰는것을 散文이라하여도 크게 틀림이업슬것이다 그러다면『詩』와『文』이라는말은本質的으로 區別된名稱이던가 或은偶然히 區別된名稱이던가 即律語의有無는 其作品의 內面的必然性에依함이던가 또는 言者의 任意로 決定한것이던가 이와가튼

【論題】는 一種詩로看做하는 現代에잇서서는 가장重要한問題이다 詩에는 반다시整然된詩形이 必要하다는것과 詩形은 一種 外形을美化케하는 裝飾物에 不過하다는것과 大體로 두가지로 區分할수잇스니 後者에屬하는것이 律語의有無는 任意的으로 생각하는사람들의 主張이다 그러타면 詩는 반다시 韻文으로되여야만한다고 主張하는사람들의 眞意가 那邊에잇슬가 詩가 詩形을必要로하는 所以는 整齊된詩脚과 諧調로 말미암아 一般讀者와聽者에게 一種快感을주는데 잇다고한다 그러면 그들이말하는 이

【快感】이果然詩의本質上 必須物이든가 詩는 美化된詩形을 가추우지안트라도 自己의詩想을 넉넉히表現할수잇슬것이다 다만 整然된詩形을가추운詩가 外華로 아름다움과또한 우리의게 加一層 興趣를 돗가주는 手段에지나지못한다 詩形을 가추우지안헛다고 그

學生通信 바다를건느며 (2)

平壤崇實 尹龍燮

깃이 해질수업다는 極端에까 지는 이르지안흘것이다

맑은하늘가티 잔잔한바다의 겁질우으로이배는 지처나가를 더우빨리합니다, 한點티도업는 맑은바다를無情하게도 두조각으로 갈으며우르렁우르렁前進하고잇습니다

뒤에는 推進機에 깁려나는 波浪가 彼此에弄絡하며물고뜻다가는 暫時에업서지고또읽어나서는 赤是怒睡앗발항이如前합니다

平和의바다? 아니요 몰닷더니만 여기에도싸홈이잇답니다 그것은 이平和의바다우에이배가합부루칭으로서렴니다 모이여 우리는 저저주함嗽을떠나올때에 넘우나만흔企待를이바다에두엇든것을 이제새삼스럽게後悔합니다 싸움이업는곳에 살수업는것이人生이겟지요

初年에食爭이
中年에榮爭이
老年에病爭이
이것이人生인가하노라

이제는 아무것도보이지아니합니다 左右前後四面은 蒼空으로壁을짓고 滄浪으로장판삼아 軍艦房을만들엇스니 이몸이살기에도 넘우나 좁습니다 그려!어느한便에 眺望할수잇는 窓門을만들어주면 합니다 답답한놈이 울려고 눈물삼엇답니다 只今은風浪이 조금잇는 입니다 縱이約百米突 橫이二十米突가량이나되는큰 丸이 一葉의片舟가티 나부끼는동안에航海에설은 우리는四等病室가튼船室에들어가 呻吟하는患者보양으로드누엇습니다

金·李兩氏 版畵小品展

◇二十五日부터七日間◇

東京에서多年間 本版畵를研究하든 版畵界의名匠이잇는金貞桓, 李秉玹兩氏는 今二十五日부터 三十一日까지市內長谷川町 茶房플라탄드에서 版畵小品展覽會를開催한다는데 多數히觀覽하기를바란다한다

對米關係五十年史

正式談判과條約成立 (35)

湖岩

條約調印光景

【李二】兩보다압서서 在天津領選使의 報告에依하야 漢陽朝廷에서는 東來하는美使와 淸使를 마지할準備도 奔走하든中에 陰曆三月二十一日 淸艦이먼저 이르러 仁川府使에게 一封의 글월을 던지엿다 그는이뒤로 곳美使가올터이니貴朝廷에 奉聞하야 全權委員과 談判場所를 速키알려달라고하엿스며또貴國王에게 올리는李鴻章의書函이 잇는데 어대로보내야 조흘는지 알수업슨즉 委員을시켜 接受함을 바란다고하엿다 美使의 宿所도 맨처음京江近傍의 어느舘宇를 修理하다가 그後 다시 仁川官舍로變更하엿다

【翌二】日에 朝鮮과米國人사이에 仲介의役割을 行하는馬建忠이 『슈펠트』를 訪問하고 朝鮮님검이 條約談判을 爲하야 任命한 두朝鮮全權들로面會할것을 議定하엿다 全權大臣에는 일즉 韓日修約條에 締結한 正一品 總理事申櫶이요 그副官은 일즉日本에修信使로갓든經綸이잇든 金弘集인데當時內閣員中의 한사람이엇스며從事官은 徐相雨이엇다 五月十四日(西曆)에 이르러 이두大官과 隨員들과 通辭가 『슈펠트』 提督을 往訪할새 美國軍艦은大砲三發의禮를 行하야 軍艦우에 迎接하엿다 主客사이에 매우好意를 가지고 酬酢하엿고 朝鮮全權이 도라온뒤에는 쌀과 鷄卵과 닭과牛肉等의 禮物을 보내엿다 六日後에『슈펠트』는 隨員들을 터리고 軍

【艦】의旅行에서 約六哩되는內地에 드러가 仁川이란곳에 가서 朝鮮全權들과 面會하엿다

朝鮮側記錄을 보면 이날은 곳陰曆三月廿四日에 該當한바仁川에 出張하엿든 伴接官이 淸使의 督促에依하야 全權委員을 速키派送하라고 請함으로 總理事申櫶을 彼使의留住處에 下送하야 모든事務를 商辦케하고 經理事金弘集을 副官으로 副主事徐相雨를 從事官으로 差下하야 下直하지말고 한가지로 出往하라 한것이잇다 바루이날에 兩方專權이 信任狀을 調査하야 憑據를 確認하엿다 그리한다음에 『슈펠트』提督은 美國大統領『아ー터』의 國書를 朝鮮全權에게 드리면서그意義를 說明하야갈우되 이것은한 友邦의 主權者에게 보내는國書란것이니 이뜻으로 國王께 奉呈하기를 請하노라 함으로 朝鮮全權은 그리하겟다고 對答하엿다 이當席에서 二日後또 다시 會見하기로 約束하고 『수와타란』號를 바라보면서 天津에서 完成된 條約에捺印交換하기를 決定하엿다 이條約의捺印은 五月廿二日에 擧行하엿는비 當日儀式에 對한『슈펠트』 提督의 忘備錄에는 아래와가튼 記事가 잇다 五月

【廿二】二日上午九時三十分에『슈펠트』提督은『쿠퍼』艦長과,『펜들톤』,『타의러』兩大尉와軍醫『혹크』와主計『해리스』와技師『에답손』과海軍少尉『쿠퍼』와 『떠빗』과 『펜스테일』과 海軍少尉候補生 『맬도니』와『앤드리우스』와 『플린다인』과 技手『헤슨』과『킹』을 帶同하엿고 米國軍艦『수와타라』號의 海軍一隊는『스파이서』大尉의領率下에 軍艦을떠나 韓米條約調印을 爲하야 旣定한地點을 向하야 前進하엿다 그地點은 陸地에 각가운곳으로 濟物浦란市場인데 거기서『로제아일란』附近에 碇繫한軍艦全體를 眺望할수잇섯다『슈펠트』는이곳에 到着하야 朝鮮側에서 架設한

【帳】幕에 드러가니 經理事申櫶과 內閣員金弘集과 그他隨員들이며 馬道臺와丁提督과 大淸帝國海軍從事員인『코레이소』大尉가 잇섯다 若干의談話가 잇슨다음에 英譯文三本과 漢文三本合六本의條約文을 가지고『슈펠트』提督이 合衆國側을 代表하야 署名하엿고 申櫶金弘集두大官이 朝鮮側을 代表하야 捺印하엿다 捺印이 끗나자海岸에서 通知를보내니 『수와타라』號로서 禮砲二十一放을發하엿다『슈펠트』提督과 隨員들은 그後에『수와타라』號로 歸艦하엿다

失敗한米國의 成層圈探險飛行

米國地理學協會와 米國陸空軍의 絕大한支持아래지난七月二十八日『싸우드·다코다州』『라피드』市로부터 上昇한米國의 成層圈探險飛行의一行『W·E·케프너』少佐와알버ー트·스티븐슨大尉와 올빌·앤더슨大尉는約五萬七千呎의上空에서 氣球故障으로인하야 上昇新記錄을짓지못하고 드듸어飛行을 斷念하고 각기『파라슈ー트』로뛰여내렷다 寫眞은『라피드』市를出發하는 一行과氣球가 一分間에五百呎의速度로 落上할때『J、F』밀럽스中尉가 飛行機우에서撮影한것이다

朝鮮文壇의精銳인 靑年作家十五人創作陣

短篇小說連載

사람은 사람에대한──주인생에대한 흥미를가지고잇기때문에 문학(文學)이 잇게될이라함과 가치 우리는 우리들에게대한안목이 열리기때문에 신문학운동이이러나 이십년의 짜른세월에 조선문단의 장족적발전을보게되엿다

그러나 유채적불안과 정신적불안이 인류로하여금 최후의일선에 젯축질하는이때에 조선이가 질문한은 어떠한것일가 과거에잇서서 섯숙치못한 우리문학우에 가혹한편달이잇섯슴도큰원인이려니와 리롭지못한 환경에서 비저지는 문학은필경침체와 정돈(停頓)에서 그리고비경에서배회하게되여 우리문단이──과거의 잘못을 청산한다는것보담도 외우내환의 진퉁긔(陣痛期)에서 파각한 결단──용략이업스면 조선문단의 이처명적재난 흉으자멸적운명을 물리칠수가업슬것이다

이제 우리는 탁월한 문학리론 보담도 압서서 우리들의 이러한시대에잇서서의 새로운 창조적문학행동이 잇지안으면 안된다 이런의미에서 우리조선일보사에서는 우리문단에 대한봉사적 의도로써 우리문단청년작가(靑年作家) 제씨의 창작단편소설(短篇小說)을 련재(連載)하게되엿다 신문소설로서 보담도 작가들의 독특한 수법과、인생관、사회관들을 비추워 노도격랑에 부닷기는 우리들 생활의、생명선이나 다름업는 키가될수잇슴으로 심혈을경주한그려 작 걸작들을필목상대한날이 멀지안엇다──민촌리긔영(民村李箕永)씨의 장편소설 고향(故鄕)은 조선농민들을 대성통곡케하고、노호하게한감격편이엿거니와 이소설이 몃칠만잇스면 끗나겟슴으로 이여서 제씨의 단편소설을 련재하게되엿고 상세는 추후에 발표하기로한다

執筆者

朴英熙、張赫宙、李箕永、李無影、趙碧岩、
李相和、李石薰、朴泰遠、朴花城、宋影、
嚴興燮、安懷南、李孝石、金起林、蔡萬植、
=(無順)=

—九月初旬부터學藝面에連載—

朝鮮日報社

八月二十六日(日曜)

◇午後○時五○分 唱劇調 (가)短歌 뒤東山 (나)春香歌中 林鍾花 (가)短歌 (나)沈淸歌中 金東梅

◇同六時三○分 하모니카獨奏 一、離別의港曲…암빈作曲 二、귀여운中國人…富田東葉 三、東洋의薔薇…이바노비치作曲 四、詩人과農夫…쥬페作曲 五、카르멘…비제作曲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冒險의生活 朴淵瑞

◇同八時 時調와京畿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은실打鈴 四、燈打鈴 五、양산도 趙牧丹

金蓮玉

◇同八時三○分 西道俗謠 一、難逢歌와 역금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긴아리랑 五、數心歌 金玉葉 李眞鳳

◇同九時 獨唱과바이올린獨奏 一、바이올린獨奏 김흔시내 二、獨唱(바이올린助奏) 三、바이올린獨奏 四、獨唱 마리아 마스카니作曲 五、獨唱(바이올린助奏) 아모도몰으는 獨奏와助奏鄭正淳 피아노伴奏 金恩子

◇同九時三一分 歌詞 一、白鷗詞 二、길軍樂 文山紅 金花香 金永根

八月二十七日(月曜)

◇午後○時五分 音樂 一、타입스、스퀘어 하와이안기타 二、칼리나、월쓰…카야어作曲 三、프리드…크라이作曲 四、푸아스미스作曲 五、波濤위의戀人…모나고作曲 六、하이、스롤、꺙…외스作曲 七、아름다운、타하나…

◇同六時 趣味講座 園藝家의最後(一) 成大勳

◇同六時三○分 童謠 一、齊唱 가을 二、獨唱 자장가 三、齊唱 바다 四、獨唱 우리애기날 五、齊唱 사시 六、獨唱 고향생각 七、齊唱 小夜曲 八、齊唱 집업는새 安洞少女會員伴奏 安淳永 指揮 李碩和

◇同八時 夏期特別講座(其四) 性格의心理(一)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分 音樂 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一、壽齊天(管樂) 二、獻天壽(細樂) 三、碧九如之曲(管絃並奏)

◇同八時五五分 라디오드라마 어머니 全一景 李瑞求作 配役 어머니…露香 萬英…李燦 金河影…小流紳士…高宙鎭 家屋仲介人…尹承鎭 放送劇協會員

◇同九時三一分 大邱俗謠 一、短歌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大邱獨奏 신아위 大邱 李錦紅 朴鍾基

漢詩

碧梧山人 考選

三角山

二等 高陽 金洪基

名山鎭作漢陽京
天外三峯削不成
劍戟參差開舊陣
芙蓉明媚趁新晴
無土已同文豹變
有臺逈出白雲平
擧日那堪風景畢
斜陽殘堞客愁生

評曰 即物言情、曲盡其妙、非有得於風騷者、安能至篇若是乎、第二述者優於作者、五六土山變爲石山、已見於高麗史、其上有白雲臺、世人所共知、雖似易言、妙在點鐵成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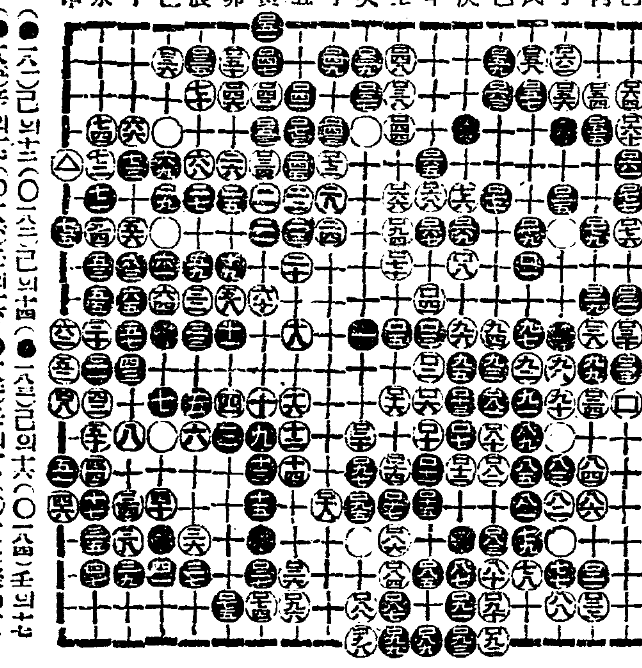
漢詩募集
詩題 仲秋月
押 城聲明晴生
限 陽九月十日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十六)

略符=〈□百△・二百・◎三百〉

白 盧史楚
黑先 丁奎春



(●一八一)己의十二(○一八二)己의十四(●一八三)己의十六(○一八四)壬의十七
(●一八五)辛의十七(○一八六)壬의十六(●一八七)壬의十八(○一八八)癸의十六
(●一八九)辛의十九(○一九〇)己의十八(●一九一)庚의十八(○一九二)己의十九
(●一九三)庚의十九(○一九四)壬의 七(●一九五)癸의十五(○一九六)丑의十六
(●一九七)癸의十四(○一九八)癸의十九(●一九九)壬의十九(○二〇〇)申의 五

◇死點 (●四九)申의十三(●一四九)申의十四(●一六九)壬의十二
(●六七)辰의 四(●一三三)卯의 四(●一三五)寅의 四

◇劫點 (○一五二)丑의 四

◇梁德文氏評曰=時局形便이 計家比較에 伯仲을 難辨이라 白壬의七 黑癸의十四가 다 利益을取하야 差異를 다토니 一毫半端인들 須臾間이라도 放心할수 잇스랴

故鄕 (232)

李箕永 作
安夕影 畵

갈등(葛藤) 十二

희준이는 방으로 드러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차저온 용무를 말하엿다.

『대강 드러서 아시겟지만 우리동리일에대해서 좀 의논할일이 잇서서왓는데요.』

하고 희준이는 우선, 저편의 괴색을 엿보잇다.

『참 엇터케 되엿는가요.』

『그저 그러고잇는데……거긔대해서, 좀부탁할게잇는데요』

하고, 희준이는 소작인들의형편을 자세히 말하엿다. ── 즉, 그들의 궁경은 더참을수가업기때문에 계속한것이 와해될위협이 각각으로 절박해온다는것을 말한후에

『그러니 엇터케든지 저들을 구해야겟는데 사실 지금나로서는 막다른골목에 잇는 셈으로 다시는아모도리가업는데요. 그래 생각다못해서 차저왓는데 엇터케 몃십원만 둘너주서야겟서요.』

『글세요돈이어듸잇서야지요』

주인은 벌서부터 꽁문이를 빼기시작한다

『그러나, 만흔돈을 요구하지는안허요, 엇터케 한이삼십원만변통해주시면 일이펴는대로 갑허드릴수도 잇겟고, 아무한테도 그런말을하지도 안을터이닛가……만일 단독으로 주선하실능력이업거든, 달니라도 변통해주섯스면 조켓서요.』

주인은 난처한 괴색을지으며, 매우거북한듯이주저하면서

『내면 나혼자내야 하겟는데 그만돈이, 창졸간 될수업는데요──요새 작난인가하느라고, 잇든것을 죄다업새노아서……』

하고, 강영히 허굼흔 우숨을 짓는다。희준이는 이말을듯고 아모대답이업시, 불쾌한괴색으로 가만이 안저잇섯다。주인은 이때의무료한 적막을 깨치랴는것처럼, 동시에 희준이의 눈치를 살혀보며

『그리고,경겨서어듸, 그런돈을 내놀나고들하겟서요。그전에 청년회일을 볼때에도 당국에관한일은 모두들서로 밀고, 꽁문이를사렷는데요。』

하고 일업는 우숨을다시웃는다

『그건 내가 보증하지요。내가단독으로 책임지고,차용한것이라면, 아모문제가 업지안켓지요。』

『그야 그러치만──내남업시 걱정이물이라、어듸그러케생각하나요。혹시 발각이나서 경을치면 엇짜는가 하지요──그리고、요새는 그놈의 마짱인가 무엇에 미처서、모다 정신이 업는판이라、그런일을 하는것을、도로혀、바람마진사람으로 돌닐텐데요 뭐……긴상도 한일년가치、일을해보신터에、벌서 짐작하실일이아니여요?』

하고、고누머리는、교묘히자긔도 발을빼랴고 둔사를 피운다。희준이는 그긔미를아려채고 이런마당에、그의발뇌을꽉 붓들지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엿다

『그러기에、나는 형공만밋고 온것이 안인가요。다락한인간들이야、돈이 누거만잇기로니、아모 소용업겟지만、적어도 동지간이라면、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피차에도 요……그러다면 형공께서 아갈 의무가 잇지 안켓서도、남다른 생각이 잇서야 할줄아는데요』

한번 치켜세는바람에──

『네、그건그럿데……지금은 마참 돈이업는데요』

하고 주인은 무색한듯이、한손으로 머리를글그며 희준이를 처다본다。그것은 마치、살녀달나고 애원하는、죄인의 가련한 태도와갓다。

『그럼 일간변통될수가 잇다는말슴인가요?』

『네……몃칠후에는 다소간도라슬것가튼데요……』

『그럼,그동안에 힘써보아주시지요、나는 형의성의만밋고 가겟서요』

하고、희준이는 자리를 벌떠이러섯다。

『아니、더놀다가시지요。』

『아니요、가봐야겟서요。』

희준이는 문밧그로 나와서 앗가오든길을 다시밟엇다。그는 도라오며 곰곰생각할수록 세상인심이 변해지는데、은근히놀내엿다、고루머리가、그와가티변햇슬적에야、다른사람들은 더말할것도 업지안은가?그들은 모다、소뿌르조아의 안일한 생활에 보금자리를 치지안으면、그날그날의 룸펜생활에 만족하고잇는──무지몰각한 인간으로 오직타락의길을 밟어 갈뿐이엿다。

『완전한실패다!……그럼 저일을 엇지할가?』

희준이는 점점 머리를숙이며、절망의심연(深淵)으로 생각을 떠러트렷다。──

ウテナ水白粉
우데나

녀름의새로난流行色

벗겨지안케
白色
肌色
나추레루
오구르一號

벗겨진살결에
健康色
濃肌色
오ー굴二號
부룬

어느거나 ウテナ의 고흔水白粉!
三十二錢、五十三錢

東京·本舖 久保政吉商店

9.8—22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三千六百七圓五十錢

物品累計 六萬 三千五百五十一點

- 一金二圓五十錢 釜山府新興町 예수敎會勉勵靑年會
- 一金七圓五十錢 京城理髮業朝鮮人組合員一同
- 一金一圓 昌信洞二一 朱學淳
- 一金一圓 安東縣三番通 金賢模
- 一金五圓 奉天 金九經 (奉天支局三回滯洛分追記)
- 衣類五十六點 光化門通一 西村節 (昨日西村八郞의訂正)

本社始興支局經由分(六回)

一金六十二圓九十八錢
衣類二百六十三點
白米一斗八升八合

內譯

- 九圓 砂村基督敎會
- 二圓 高鍾敏
- 五十錢 崔干蘭

(永登浦里西區砂村振興會)

- 一圓 金道元
- 一圓 金貞淑
- 一圓 始興藥局
- 六十錢 鄭興元
- 五十錢 朴聖遠
- 五十錢 金義政
- 五十錢 池鉉玉
- 五十錢 朴昌鎬
- 五十錢 宋富燮
- 五十錢 姜信弘
- 五十錢 張錫台
- 五十錢 宋基東
- 五十錢 申光鉉
- 五十錢 李平植
- 五十錢 李孫伊
- 五十錢 李汝汝
- 三十錢 朴興萬
- 三十錢 方仲一
- 三十錢 李源泰
- 三十錢 金裕建
- 三十錢 尹興甲
- 三十錢 李善古
- 三十錢 金壽辰
- 三十錢 李松山
- 二十錢 金永煥
- 二十錢 景興善
- 二十錢 判東植
- 二十錢 李龍信
- 二十錢 宋恒植
- 二十錢 李奉基
- 二十錢 李在善
- 二十錢 金點釗
- 二十錢 宋一文
- 二十錢 林昌男
- 二十錢 李甲出
- 二十錢 朱乭童
- 二十錢 金壽文
- 二十錢 閔英植
- 二十錢 徐丙善
- 二十錢 成京永
- 二十錢 金聖鉉
- 二十錢 金學淳
- 二十錢 白龍倘
- 二十錢 秋敬弼
- 二十錢 金德玄
- 二十錢 金一洙
- 二十錢 蔡興默
- 二十錢 尹敬善
- 十五錢 徐元明
- 十三錢 朴元則
- 十錢 金巨福
- 十錢 李昌男
- 十錢 宋春澤
- 十錢 成煥
- 十錢 姜泰賢
- 十錢 李大永
- 十錢 李順龍
- 十錢 元珪常
- 十錢 李壽孝
- 十錢 李起元
- 十錢 車載南
- 十錢 全興東
- 十錢 白鉉祚
- 十錢 咸順吉
- 十錢 車載和
- 十錢 朴興陽
- 十錢 高喜俊
- 十錢 金洙弼
- 十錢 金相俊
- 十錢 崔孝根
- 十錢 車錫表
- 十錢 朱鎭成
- 十錢 金龍文
- 十錢 孫昌云
- 十錢 金東漢
- 五錢 韓德敎
- 五錢 全壽明
- 五錢 李順基

(新砂村振興會)

- 三圓 田村太平次
- 三圓 橫尾武敏
- 一圓 山口密十
- 一圓 中村德太郎
- 五十錢 白斗永
- 五十錢 中谷彦治郎
- 五十錢 金在衡
- 五十錢 金春成
- 五十錢 具德會
- 五十錢 鄭德和
- 五十錢 李公天
- 五十錢 姜時文
- 五十錢 吉村重助
- 五十錢 秋光玉
- 五十錢 金在喆
- 五十錢 李甲童
- 五十錢 韓順龍
- 三十錢 韓世澤
- 二十錢 皮順泰
- 二十錢 咸聖淳
- 二十錢 文命甫
- 二十錢 李重稷
- 二十錢 尹定遠
- 二十錢 金養浩
- 二十錢 鄭先奉
- 三十錢 朴東載
- 二十錢 柳浩堉
- 二十錢 金点奉
- 二十錢 蔣承煥
- 十錢 朴寅愛
- 十錢 朴聖培
- 十錢 安福山
- 十錢 李永漢
- 十錢 韓順昌
- 十錢 李德洙
- 十錢 李英基
- 十錢 任福三
- 十錢 張在倫
- 十錢 黃昌順
- 十錢 沈宜遠
- 十錢 崔在晙
- 十錢 金昌順
- 十錢 李聖秀
- 十錢 白相敎
- 十錢 白相寅
- 十錢 姜大元
- 十錢 全相玉
- 五錢 朴又培
- 五錢 安癸順
- 五錢 洪聖杓

(鷺梁津新分村振興會)

- 一圓 十二點 姜均
- 一圓二十錢 宋寅東
- 七十錢 朴容成
- 七十錢 九點 李蓬春
- 五十錢 二十七點 孫雨天
- 五十錢 十點 尹萬榮
- 五十錢 六點 申慶浩
- 五十錢 徐和順
- 五十錢 金鍾秀
- 五十錢 安承晩
- 三十錢 十九點 鄭興根
- 三十錢 盧伯龍
- 三十錢 宋憲舜
- 二十錢 七點 李致化
- 二十錢 二點 米二合 洪順男
- 二十錢 米五合 林順眞
- 二十錢 五點 李基俊
- 二十錢 米六合 姜元弼
- 二十錢 金永元
- 二十錢 申榮漢
- 二十錢 尹鍾喆
- 二十錢 徐鎭男
- 二十錢 趙漢貞
- 二十錢 朴基豊
- 二十錢 朴壽德
- 二十錢 柳錫讚
- 二十錢 金相男
- 二十錢 白雲仲
- 二十錢 李昌俊
- 十五錢 鄭文鎬
- 十錢 五點 米七合 靑鳳城
- 十錢 米五合 張興吾
- 十錢 一點 黃周淵
- 十錢 五點 李希雲
- 十錢 金德成
- 十錢 洪銀福
- 十錢 朴基先
- 十錢 李奉春
- 十錢 宋玉同
- 十錢 安部
- 十錢 崔銀浩
- 十錢 徐聖龍
- 十錢 閔壽男
- 十錢 金壽乭
- 十錢 趙順旲
- 十錢 金甲錫
- 十錢 高應淵
- 五錢 李興順
- 五錢 金又山
- 五錢 玄明俊
- 五錢 李明秀
- 五錢 鄭老郁
- 五錢 金貞男
- 五錢 李德信
- 十二點 金模孫
- 十三點 孫召史
- 十二點 金學九
- 十點 金壽命
- 十三點 米四合 李光鉉
- 十點 李又成
- 九點 安用基
- 九點 松尾
- 七點 金仁植
- 白米五升 車圭聲
- 四點 朴七星
- 四點 崔元國
- 三點 崔一成
- 三點 金益秀
- 三點 朴興石
- 六點 金光在
- 三點 金然淑
- 二點 李丙秀
- 二點 張九味
- 二點 金昌煥
- 二點 李鎭成
- 二點 宋回童
- 二點 辛榮培
- 二點 白壽德
- 二點 金鐸錫
- 二點 徐聖龍
- 一點 姜興孫
- 一點 尹鍾學
- 一點 金益洙
- 一點 鄭雲龍
- 一點 米三合 吳南秀
- 一點 金奉完
- 一點 米一合 方仁用
- 一點 白米四合 金富成
- 二點 白米五合 金昌順
- 一點 權濼
- 一點 申益均
- 一點 李貞奉
- 一點 河福三
- 一點 孫昌變
- 一點 朴龍甫
- 米一升 方次福
- 米一升 申順三
- 米七合 金光昌
- 米八合 金玉永
- 米五合 李泰成
- 米五合 朴鍾完
- 米六合 金潤澤
- 米五合 金敎亨
- 米五合 金合鎭
- 米四合 柳守岩
- 米三合 金興云
- 米三合 金學成
- 米三合 金用福
- 米三合 張石在
- 米三合 崔熙千
- 米三合 金興文
- 米三合 李興周
- 米三合 嚴聖煥
- 米三合 印國鉉
- 米二合 盧寶成
- 米一合 張龍淳
- 米一合 陳春根
- 一點 張順賓
- 二點 無名氏
- 二點 鄭淑子
- 一點 柳順玉
- 二點 李侖三
- 三點 李性煥
- 一點 金後男
- 二點 崔性福
- 一點 高信子
- 六點 金甲順

本社興南支局經由分

一金五圓八十錢
衣類一百八十八點

內譯

- 八十錢 金錦姬
- 五十錢 徐貞姬
- 五十錢 郭月順
- 五十錢 張春花
- 五十錢 朴春福
- 五十錢 李金子
- 三十錢 金玉仙
- 三十錢 崔桂花
- 三十錢 方福順
- 三十錢 全中仙
- 三十錢 朴愛子
- 三十錢 趙君子
- 二十錢 朴今順
- 二十錢 金春桃
- 十錢 徐釆鳳
- 十錢 金桃花
- 十錢 吳山月
- 四點 黃金山
- 三點 賓昌植
- 四點 李粉禮
- 五點 南春華
- 二點 陳夏澤
- 三點 李一淑
- 六點 李相弼
- 一點 金昌宰
- 二點 李善德
- 二點 金七默
- 二點 朱洛元
- 三點 李鍾完
- 一點 李漢須
- 二點 金億石
- 四點 丁業祐
- 一一點 吉金福
- 二點 金曾女
- 二點 文善彬
- 二點 金德善
- 一點 金基哲
- 七點 崔守彬
- 三點 金連奉
- 三點 姜明花
- 六點 姜道實
- 四點 崔順兒
- 一點 崔日玉
- 二點 申鉉滋
- 五點 孔桂雲
- 一四點 咸文學
- 四點 李致熙
- 一點 金今順
- 二點 崔大源母親
- 二點 河仙女
- 四點 朱貞姬
- 三點 朴壽德
- 二點 金順漢
- 二點 朱裕善
- 四點 李壽福
- 三點 金漢龜
- 三一點 金貞夏
- 一點 姜春子
- 二點 金鍾燮母
- 一點 李仁善
- 三點 金東姬
- 二點 韓泰鉉
- 一點 金鳳漢
- 四點 李貞錫
- 一點 金夏善
- 一點 無名氏
- 一點 崔貞子
- 一點 李時斗母

本社安邊支局經由分

一金九十一圓六十二錢

內譯

- 十圓 金昌鐥
- 十圓 培花消費組合
- 五圓二十八錢 安邊邑貯米組合
- 五圓 金相賢
- 五圓 朝鮮運送株式會社安邊代行營業所
- 五圓 金鴻稷
- 五圓 朝鮮日報社安邊支局
- 三圓 鶴城釀酒所
- 二圓 李厚埴
- 二圓 金洪錫
- 二圓 朴東秉
- 二圓 金水龍
- 二圓 半島自動車部
- 一圓 姜郁鉉
- 一圓 李根植
- 一圓 朴靑林
- 一圓 朴龍淳
- 一圓 朴元益
- 一圓 黃相彦
- 一圓 飯島重次郎
- 一圓 信行食堂
- 一圓 朱東燮
- 一圓 林基寬
- 一圓 海東舘
- 一圓 朴周發
- 一圓 金士燮
- 五十錢 李秉夏
- 五十錢 東元洋服店
- 五十錢 姜壯元
- 五十錢 中央理髮舘
- 五十錢 安邊時計店
- 五十錢 朴榮春
- 五十錢 鄭行敏
- 五十錢 丁奎贊
- 五十錢 姜郁楨
- 五十錢 金昌玉
- 五十錢 崔在淳
- 五十錢 池龍一
- 五十錢 金洙永
- 五十錢 海東館妓生 崔海中月
- 五十錢 同 朴雲仙
- 三十錢 李璵浩
- 三十錢 崔德寬
- 三十錢 雙發園
- 三十錢 高在鳳
- 三十錢 相信洋服店
- 三十錢 李宗夏
- 三十錢 全永俊
- 三十錢 文得浩
- 三十錢 柳順任
- 二十錢 金秋月
- 二十錢 朴瓊心
- 二十錢 裵正淑
- 二十錢 劉泰仙
- 二十錢 金基柱
- 二十錢 朱宰豊
- 二十錢 朴貴榮
- 二十錢 朴一秉
- 二十錢 朴承秉
- 二十錢 朴貞秉
- 二十錢 金德來
- 二十錢 辛哲鎬
- 二十錢 安康號
- 二十錢 金澤龍
- 二十錢 朴元河
- 二十錢 金興福
- 二十錢 李士一
- 二十錢 具致善
- 二十錢 金龍三
- 二十錢 李元埴
- 二十錢 全利和
- 二十錢 姜福源
- 二十錢 申容澈
- 二十錢 優利寫眞舘
- 二十錢 金雨龍
- 二十錢 白淳英
- 二十錢 申暐澈
- 二十錢 嚴龍成
- 二十錢 林德模
- 二十錢 李炳洙
- 二十錢 崔廷謙
- 二十錢 辛逸泰
- 二十錢 朴景星
- 二十錢 申萬雨
- 二十錢 嚴緯變
- 二十九錢 尹君玉
- 十錢 金鴻彦
- 十錢 金乙孫
- 十錢 南德祚
- 十錢 鈴木久平
- 十錢 金道謙
- 十錢 李明烈
- 十錢 申福順
- 十錢 李東珠
- 十錢 全炳周
- 十錢 李東夏
- 十錢 金辰成米穀店
- 十錢 尹花容
- 十錢 全丁祚
- 十錢 崔基柱
- 十錢 崔基彦
- 十錢 崔基成
- 十錢 裵明俊
- 十錢 申七星
- 十錢 凌鳳翔
- 十錢 李鍾鶴
- 十錢 文履萬
- 十五錢 池秉嬉
- 五錢 黃南北
- 五錢 申順喆
- 五錢 金起範
- 五錢 姜熙男
- 五錢 姜灐男
- 五錢 金明達
- 三十錢 韓泰山

在靑島朝鮮人會

一金八十五圓七十錢 (靑島武城路一三)

內譯

- 五十錢 趙益善
- 三十錢 甲姓女
- 五十錢 金信贇
- 五十錢 白福明
- 二圓 高松洋行
- 五十錢 李龍奎
- 五十錢 朝鮮食堂
- 五十錢 趙秉健
- 一圓 金泰錫
- 五十錢 白尙元
- 五十錢 文世敏
- 二十錢 張致周
- 三十錢 鄭利周
- 三十錢 宋致俊
- 三十錢 朱亨根
- 二十錢 金熙涉
- 二十錢 李成俊
- 一圓 金定源
- 二十錢 文應寬
- 五十錢 黃承俊
- 一圓 梁桂俊
- 三十錢 李俊奎
- 五十錢 吳昌顯
- 一圓 張允宗
- 三十錢 金極文
- 三十錢 林昌根
- 三十錢 金福心
- 三十錢 孫興善
- 三十錢 崔錫官
- 三十錢 邊河蓮
- 三十錢 方震國
- 一圓 吳宗根
- 一圓 趙萬弘
- 五十錢 嚴斗元
- 一圓 無名氏
- 一圓 張德宗
- 五十錢 金石澤
- 一圓 韓學洙
- 二十錢 全思福
- 一圓 洪仁善
- 三十錢 洪成奎
- 三十錢 崔振靑
- 一圓 洪鎭瑾
- 一圓 金敬天
- 三十錢 金大得
- 五十錢 崔德淳
- 十錢 崔錫一
- 一圓 金允湜
- 五十錢 姜錫根
- 五十錢 黃一淸
- 二十錢 李學龍
- 三十錢 李基伯
- 五十錢 李成國
- 五十錢 金振龍
- 五十錢 無名氏
- 五十錢 金光熙
- 三十錢 白湖山
- 五十錢 韓近呂
- 二十錢 趙秉鐵
- 五十錢 金敎植
- 二十錢 李信昊
- 三十錢 李均商
- 二十錢 張殷瑞
- 三十錢 朴春煥
- 二十錢 黃思正
- 二圓 山東醫院 林喆相
- 五十錢 金振兌
- 三十錢 張鳳洛
- 三十錢 趙志沃
- 一圓 多福商會
- 三十錢 韓致鏞
- 二十錢 玄東鈺
- 一圓十錢 洪義善
- 四十錢 崔永奎
- 三十錢 金貞根
- 五十錢 申雲鎬
- 三十錢 李景世
- 三十錢 金奉麟
- 十錢 李淑女
- 三十錢 鄭義男
- 二十錢 鄭學巖
- 二十錢 吳貞瑞
- 二十錢 曺龍德
- 五十錢 姜金石
- 二十錢 張保明
- 二十錢 李允秀
- 三十錢 洪淳普
- 五十錢 李宗夏
- 五十錢 李泰元
- 五十錢 崔辰永
- 三十錢 朴奉西
- 三十錢 鄭永植
- 五十錢 李昌夏
- 五十錢 白英吉
- 五十錢 白錫拔
- 五十錢 金會信
- 三十錢 鄭炳煥
- 二十錢 白樂道
- 五十錢 趙榮鎭
- 三十錢 金炳國
- 五十錢 金允森
- 三十錢 李潤福
- 三十錢 朴奉益
- 五十錢 曺萬炯
- 二十錢 趙尙根
- 一圓 白敬俊
- 一圓 金龍虎
- 三十錢 白陽燁
- 五十錢 梁正來
- 一圓 無名氏
- 三十錢 白義天
- 三十錢 尹寬柱
- 二十錢 金麗淑
- 五十錢 張奉奎
- 五十錢 李永鳳
- 二十錢 宋根學
- 二十錢 李彩姜
- 一圓 鄭守奉
- 五十錢 文良順
- 二十錢 朴昌燁
- 五十錢 朱雲龍
- 三十錢 白炳垠
- 三十錢 李得守
- 二十錢 梁桂溫
- 二十錢 郭秋田
- 二十錢 金達衡
- 二十錢 金麟權
- 二十錢 金振坤
- 二十錢 金孝儉
- 三十錢 張昌明
- 三十錢 金芸璇
- 二十錢 金仲權
- 三十錢 金炳漢
- 五十錢 朴世沃
- 一圓 崔文坤
- 五十錢 獨孤洙
- 二十錢 韓利坤
- 二十錢 洪鳳植
- 三十錢 朴仲祚
- 二十錢 金學俊
- 二十錢 張智明
- 三十錢 金仁恒
- 三十錢 夫南旻
- 三十錢 金時祐
- 五十錢 張仁明
- 一圓 金善玉
- 二十錢 金炳沃
- 五十錢 黃承洛
- 二十錢 崔正麟
- 三十錢 洪子厚
- 三十錢 崔成巢
- 二十錢 金宗玹
- 一圓 金泰俊
- 一圓七十錢 洪成贊
- 三十錢 洪仁協
- 二十錢 張時訥
- 二十錢 金孝傑
- 五十錢 崔澤均
- 二十錢 趙原根
- 三十錢 崔俊碧
- 三十錢 李桂秀
- 二十錢 黃思談
- 五十錢 金永煥
- 三十錢 黃鍾益
- 一圓 權益三
- 三十錢 洪志善
- 三十錢 鄭春京
- 五十錢 白世煥
- 二十錢 黃仲坤
- 三十錢 金奎星
- 二十錢 張德龍
- 二十錢 金貞瑞
- 三十錢 鄭用瓚
- 五十錢 金時會
- 三十錢 任永浩
- 一圓 金啓昌
- 三十錢 文信彦
- 一圓六十五錢 金瑞萬
- 二圓 鄭達守

本社龍潭販賣所經由分

一金二十三圓七十錢

內譯 一般部

- 二圓 共一商店
- 一圓 徐載琳
- 一圓 李祐成
- 五十錢 金壹榮
- 五十錢 無名氏
- 五十錢 是永久子
- 五十錢 藤原久仁子
- 五十錢 江口島子
- 五十錢 川北和人
- 五十錢 崔完貴
- 五十錢 文善馨
- 五十錢 林鍾鎬
- 四十錢 高昌鉉
- 三十錢 林琪
- 三十錢 金榮琪
- 三十錢 丁祺主
- 二十五錢 姜斗煥
- 二十錢 宋鳳奎
- 二十錢 林延相
- 二十錢 權永貞
- 二十錢 金鎭三
- 二十錢 金判柱
- 二十錢 卞鍾澤
- 二十錢 李鍾元
- 二十錢 高泳欽
- 二十錢 成興準
- 十錢 文英洙
- 十錢 高昌烈
- 十錢 李鎭錫
- 十錢 金二性
- 十錢 高銀變
- 十錢 黃亨錫
- 十錢 高夏相
- 十錢 黃八萬
- 十錢 鄭昌順
- 十錢 許在現
- 十錢 高乙相
- 十錢 金用鎬
- 十錢 金福同
- 十錢 高泰變
- 十錢 朴昶洙
- 十錢 卞準基
- 十錢 郭用七
- 十錢 郭周澤
- 十錢 黃聖雲
- 十錢 文基哲

徒生部

- 一圓 龍公普 文金子
- 二十錢 同 卞東初
- 二十錢 同 高槿相
- 二十錢 同 林錫禮
- 十五錢 同 金奉禮
- 十五錢 同 金松林
- 十錢 同 高善子
- 十錢 同 卞義洙
- 二十錢 全高普 高龜相

婦人團幹部並團員有志

- 一圓 申英淑
- 一圓 具福林
- 五十錢 李惠史
- 五十錢 梁海根母親
- 五十錢 趙忠吉夫人
- 五十錢 皮仁德
- 五十錢 李群葉
- 五十錢 林大岳
- 五十錢 崔安禮
- 二十錢 朴貞圭
- 二十錢 高駿相母親
- 二十錢 卞喜洙母親
- 二十錢 朴賢淑
- 二十錢 丁應鎭夫人
- 十錢 韓基昌母親
- 十錢 文合洙母親
- 十錢 李鍾烈母親
- 十錢 高名奎母親
- 十錢 閔炳恒夫人
- 十錢 文俊珠
- 四十五錢 無名氏

本社瑞山支局經由分

衣類六十六點

內譯 (瑞山監理敎會)

- 二點 李貞義
- 二點 李仁燮
- 二點 金彩順
- 二點 金端春
- 二點 崔貞山
- 五點 李和順
- 四點 姜貞元
- 二點 崔羅烈
- 二點 金昌順
- 二點 全樂京
- 二點 柳日禮
- 一點 金春億
- 二點 徐先君
- 三點 鄭小弟
- 二點 金義烇
- 三點 李夏宮

(海美敎會)

- 三點 鄭得奉
- 三點 金信德
- 二點 韓春得
- 二點 金汗植
- 四點 李에스더
- 二點 姜心元
- 二點 尹瓊子
- 二點 李마리아
- 三點 李안나
- 二點 蔡恩德
- 三點 梁淑子

本社富居販賣所經由分

一金四圓二錢

內譯

- 三十錢 朴永周
- 三十錢 永源盛
- 三十錢 朴豊吉
- 二十錢 金興洙
- 二十錢 辛會鳳
- 二十錢 禹昌明
- 十錢 張丙俊
- 十錢 辛福萬
- 十錢 朴員協
- 十錢 朴載元
- 十錢 楊承憲
- 十錢 金丑松
- 十錢 申定龍
- 十錢 方昌原
- 十錢 方鎬涉
- 十錢 南富吉
- 十錢 朴昌松
- 十錢 朴挺洙
- 十錢 南平建
- 十錢 金丙三
- 十錢 田元鐵
- 五錢 兪琫淳
- 五錢 宋癸元
- 五錢 金兌炫
- 二十二錢 朴千山
- 五十錢 本社富居販賣所
- 十錢 金龍石

現金小計 二百八十五圓八十二錢

物品小計 五百十八點

訂正 二十三日附 奉天支局經由分 總額二百七十圓七十二錢은 二百十七圓七十二錢의 誤植이기訂正함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朝鮮京城
(營業案內贈呈)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孝丸
入院隨意 診察 午前九時至午後八時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 (電光二二三三)

宮內省前侍醫柏村博士創製
泄瀉·腹痛
헤루푸 (ヘルプ)
胃腸病第一靈藥
食傷·吐瀉·胃腸加答兒等 ·消化不良·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鹿矢票
冬物品揃
毛綿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才橋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한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卽頭髮、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毛髮이稀薄한것을완케하고微細한毛根이라도털나는藥フミナイン의塗擦로漸次生長식히용도禿頭
病에依하야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또이醫病에原因한禿頭脫毛에對하야서도病菌을殺滅식혀서그와갓치털을나게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털이빠진대●대머리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곽잇슬곳에털업는분……은!!것다말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フミナイン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卽時送藥함。
模造品많음 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天王寺 電話天王寺三五六番 大阪振替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水災에우는同胞에 幅湊하는同情의涙

崇德校生總動員 冒雨코戶別訪問 衣類二百點募集

【全州】 수만흔재동포의구호의소래가 각지에서일어나는이즈음에 전주숭덕학교(崇德校)아동들도 인류애에발로로지난이십이일은아침부터나리는비바람을무릅쓰고 열두대로난우어 지내집집마다 방문하야 구제금품을모집한바 당일모집된 의복이 이백삼십칠점이요 현금으로도 이원삼십일전이나되엿슴으로 본보 전주지국에서는 이를인수하야 즉시본사로 발송하엿다

崔敎員의赤誠 寸暇利用募捐

【城津】 성진군학성면상포동 상화의숙(尙化義塾)교원최창렬(崔昌烈)씨는 삼남리재동포의 참상을 생각하고 교수시간의여가를리용하야 각방면을 방문하야 구제금을모집하야 지난이십일일에 일금십륙원 륙십전을 본사셩진지국에 긔탁하엿다

布敎所僧侶도 衣服과現金을

【尙州】 상주읍내에잇는 불교포교소 승려일동은 수해리재민을위하야 금품을 모집하든중 지난이십일에리진운(李震雲)씨를대표로 의류일백 팔십팔점과 현금오원 팔십전을 본지국을통하야 긔탁하얏기에 구제회에보내엿다

어린同侔를爲해 朴喆男妹의赤誠

【牙山】 충남아산군온양면온천리의 박승환(朴勝煥)씨 손자와손녀 박철(朴喆)(七)과 박옥(朴玉)(五)은 남선지방수해지의 어린동모들이 방황한다는 말을 어른들에게듯고 한푼 두푼어더서 모흔돈 오십전식합일원을 본보아산지국으로가지고와서 리재지의 어린동모들의 한끼의밥이라도 보태게하여 달라고긔탁하고도라갓다

募捐을目的으로 女子鞦韆大會 菓子와사이다들을行商 雙浦女子들의義擧

【城津】 성진군학성면상포동에서는최창렬(崔昌烈)씨의구제금모집활동이끗나자부녀측에서도궐긔하야서옥녀 김순희 윤귀인녀(徐玉女 金順姬 尹貴仁女)등제씨의 발긔로 지난십칠십팔 량일동안간 쌍포동하안에서 추천대회를리용하야 과자、사이다등을 행상하고 녀자추천이 끗난후에는 쌍포주재소의량해를어더 남자로서십전이상의 의연금을 내는분에게는 그네를뛰게 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애써모은돈 십원오십사전을 지난이십일일에 본사성진지국에 긔탁한바잇섯는데 일반은쌍포동 청년남녀에게대하야 감사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사진은추천대회광경) 男一等 申希南 女一等 金女福

誠一義塾生赤誠

【永興】 삼남재지로! 하고모혀드는 동정금품은 날이갈스록 절정에 달하는바 영흥지방에도 각계층의 인사가총동원으로 구제금모집에 전력을 다하는중인바특히 읍내성일의숙(誠一義塾)은무산계층의생도로 그달그달의 수업료에도 곤난을밧는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푼푼히모은돈이원팔십사전을 지난이십일에 동교교장이표(李杓)씨가 생도를 대표하여 본사영흥지국에 긔탁하여잇는바 일반은 적빈아동들의 가륵한정성을 감사한다고한다

一洞이總動員 품파라서義捐 牙山郡北水里에서

【牙山】 충남아산군배방면북수리(排芳面北水里)제이구진흥회원들은금번삼남수재리재동포들이긔갈과곤욕으로방황하는참혹한정경을 본보지상으로 듯엇스나 농촌에현금이 업슴으로 동회원일동은 피땀을 흘리가며 품을판돈오원륙십오전을지난이십사일에 본보아산지국에 긔탁한 눈물겨운동포애가 잇섯다

同胞의救濟金을 先覺까지한靑年

【天安】 충남직소회사와사계 직공 홍광해(洪光海)씨는 남조선수재의 참보를 신문을통하야 본이래 그계원에게 일일히그비참한사정을 이야기하야 구제금품을 모집하라하엿스나 이미일규시괴가 지나갓슴으로 여러분에 얼마든지주선다면 내가선대하겟다고하는 열렬한에 족선(族七)에가리일하는 일반직공들은 모다호응하야 정선괴부하여 제일차로 금십원을 본보천안지국에 가지고와서 속히재지로보내달라고긔탁하엿다

窮村篤實里民 皇?의十五圓金

【安邊】 함남안변군서곡면화익리(瑞谷面和益里)는무서운홍수에산촌으로서 극히 빈곤한사람들이거주하는 지대인데 참담한삼남수재에대한 본보의 긔사를보고 그동리에서는 신현철(申鉉哲)윤장록(尹章祿)씨등의주선으로가가호호방문해가면서 푼푼전전히 모아지난 이십일일에 십오원을 본사안변지국에 의뢰하여 재지에 속히전달하여 줄것을부탁하엿다는바 일반은 그들의 풍부한 동족애에감격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始興有志의發奮 坊坊谷谷救濟熱

衣二百六十點 現金白米等等 新分村振興會發起

【始興】 해내해외를 물론하고삼남지방 리재동포를 위하야 흔은개인으로 흔은단체 적으로 각각 성의잇는 의연금품이답지하는이때에 시외 로량진 신분촌진흥회(鷺梁津新分村振興會)에서도 동리구장과진흥회장을 비롯하야 강균(姜均)서진남(徐鎭男)홍은복(洪殷福)김수돌(金壽乭)윤만영(尹萬榮)등청년제씨가 지난이십일부터 삼일간호별방문을하야 의연금품을 모은바 동리가몹시 빈촌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십이원 칠십전과 의류이백 륙십삼점과 백미일두 팔승팔합이 수합되엿슴으로 지난이십이일 본사시흥지국을 것치여 본사로긔탁하야왓는대 일반은동청년들의성의잇는활동을 칭송한다고한다

四區振興會員 現金모아寄託

【始興】 시외 영등포 신촌제사구 진흥회구역은 원데신설된동리인만치 호수도 얼마되지아니할뿐아니라 생활정도가 모다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회장김도원(金道元)로인외 수씨의 노력으로 현금십구원오십삼전을 거두어 본사시흥지국에 긔탁하야 즉시본사로송치하엿다

衣服十二件을 新造하야寄託 金模孫女史의赤誠

【始興】 시외 로량진 신분촌(新分村) 청년으로인이 삼남수해의연금품을 모집코저 지난이십일일 동리집집마다 돌아단니는중 이백구번지 박화길(朴華吉)씨대을차저간즉 그부인김모손(金模孫)(六一)녀사가 반겨마즈며 지금은맛당한 물건이업스니 내일까지참어달나고 하므로 동청년들은 그대로 돌아왓든바 전긔김씨는 그길노옷감을 끈허다가 밤을새워가면서 새옷열두벌을지어가지고 잇튼날 아침에 변변치못하나마 바더서 리재동포에게보내달라는편지와가티의연금품모집사무소로보내다하야 일반은 감격함을 마지안는다고 한다

新砂村에서도 振興會員活動

【始興】 시흥군 북면 도림리(北面道林里)신사촌진흥회(新砂村振興會)에서 도회장백관영(白寬永)림성택(林聖澤)량씨의 진력으로 현금십구원오전을 거두어본사 시흥지국을 것치여 본사로긔탁하엿다

燕麥七割減收로 二年繼續大凶作

減收의原因은冠銹病의蔓延 長津郡民의饑饉

【長津】 작년도의대흉작으로 극도의 생활난에빠저 초근목피로 겨우연명하여오든 장진지방은 금년에도이개월의 긴장마로 피해막심하든바 근일에는 괴후관계로 관수병(冠銹病)이 만연하여당지방의 중요산물인 연맥(燕麥)은칠할감수예산이며그 손해액이 사십륙만여원에 달하리라는바 이제작부면적과 피해면적을표시하면다음과갓다

作付面積 三六,六六六町二反 被害面積 一六,一三町七反

長霖의繼續으로 山農의大凶作 新興郡農民의不安

【新興】 미증유의긴장마는아직도 계일줄모르는데 이로인하야 농작물의피해는 터말할것이업거니와 더욱이 신흥군니가티 산농이만흔 지대의 농형은 아조 참담하야 평야를제한산전의 곡식은 형언할수업는 흉작으로 산간의농민들은장래의생활책이묘연하리라고한다

朔寧地方에 二朔餘의長霖

【朔寧】 두달이나계속하는지리한 장마로 삭녕일대농작물은 거의 전멸상태인바 지난이십삼일밤부터 이십사일 석양까지쏘다진비로임진강은배전증수되여 삭녕시가에 침수될 우려로일반은불안중이라한다

救濟의鐘聲은 坑夫의耳膜에도

【新興】 삼남수재의비참한소식이 본보를통하야 널리알리어지자 동족애에끌는 동정금품이매일 조선일보사로 집중하는중이거니와 이제신흥지국에도 그동정금품을 의뢰하는인사가 만허 그제일회분은 이미본사에보내엇고 다시계속하야 금품이모히는바 그중멧가지를 소개하면동군 가평면장풍리 함흥탄항철공장직공일동(加平面長豐里咸興炭坑鐵工場職工一同)은 푼푼이모은돈삼원오십전을본지국에 전달하야재지에보내기를의뢰하엿고동탄광부(炭坑夫)십삼명도 현금오원구십전을의뢰하엿는데 이들은모다동탄광에서약소한임금을바더가지고겨우생계를니어가는이들이라 이것을밧는 지국원들도 감동하기를 마지아니하엿스며 동탄광직원일동들도 본사를거치어 재지에보낼 예정으로 목하의연금거출하는중에 잇고천물산금광거락신(金洛信)이라는이는 돈오십전을 가저왓고 가평(加平)에사는 엄익삼(嚴翼三)씨는 돈일원을본지국에보내주면서 적으나마 재지에보내달라고 간곡히부탁하엿는바 이분들의 돈은잇는이의 큰돈보다더욱 성심이사모친것이라 아니할수업다

無智農民相對든 大詐欺團首犯

大同署員의손에被逮

【平壤】 무지한 농부들의 피를빠라먹든 채권사긔사가 대동서법망에 걸렷다

이십사일 오전한시경 대동서원이 부내인흥리(仁興里)유곽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는이상한 청년한명을 인치취조 하엿든바 이외에도 일개월을두고 각방면에수배 수사중이든 채권사긔단주범 부내서성리(西城里)무직 김복남(金福男)(二四)=假名임이 판명되엿는데 일단(五名中三名逮捕)은대동군을비롯하여 린접각군을 횡행하며 대정시대의권업채권은 소화시대에는 소용이 업다고 무지한농민을꾀여 그것을헐가로사서 배를불리든 것으로사긔총액은 지금 판명된것만도상천여원에 달하는데 여죄가 상당이되리라한다

◇寫眞 【上】 鷺梁津新分村振興會에서 모아노흔 衣類二百六十點과 現金白米等의 水災救濟品(中)開城府北部女宣敎會에서모흔 水災同胞救濟品(昨日記事參照)(下)全州崇德學校生徒總動員으로 戶別訪問하야 모흔水災同胞救濟品

本報讀者優待

【陰城】 충북음성본보 지국에서는 당지조일사진관과 협력하야 독자위안으로 지난이십오일부터 구월십오일까지 본보독자에게는 상할인을 하기로되엿다한다

亘久紛糾中의 濁酒問題解決

【大邱】 한달동안이나분규를 거듭하던 대구탁주문제는 이십사일 오후한시경에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양조업자측과 음식점조합 대표자가모여 타협한결과 문제의핵심인 락주가격은 매두일원팔십오전으로 십오전만 인상식히고 원만해결하얏다 한다

自己土地埋立費를 借地人에물려

다시保證金까지要求

【鎭南浦】 진남포비석리일부인 신시가로부터 정거장부근까지 십만여평이나 되는 대지(垈地)가전부대창조(大倉組)토지로 그중에서 평남도토좌우면에 아즉 매립(埋立)하지 안흔것이 사만여평이 잇는데 현관리자인 목야(牧野)에게 그토지를 매립하여 대지로 빌니라고한즉대지로사용할사람들이 매립하고 집을지으면 선처하겟다는 약족으로 수십원내지백여원을 드려매립하고집을지은즉관리인은매립한것에대하여는간섭할것이아니라고하면서선처는고사하고매립한금액의리자도주지안을뿐아니라도로혀보증금을요구한다는바이것은 넘어나 차지인(借地人)을모욕하는 괴만적행동이라 하여일반의 비난이만흔동시에 장차차지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대항하리라고한다

내조면(綿棉)공장코-트에서개최하기로 되엿든데 만반준비가완료되여 방금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陰城에서 雇傭人慰安會

【陰城】 충북음성군음성면에서는 측양에서일년내 로력한일반농민과 고용인에게 하로의위안을주고저 금월이십칠일 오전구시부터 당지 공설운동장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리라한다

木浦券番에서 水災同情演奏

【木浦】 금번남조선수재로수십만의 동포가 긔아선에서울고잇다는 참보가 날이갈사록각신문지를 통하야 세상에알려지자 해내해외에서 열열한 동포애와숭고한인류애의 발로로 흔은물질로 흔은노력으로 구구조급한이때에 목포권번(木浦券番)에서도 조선、동아、조선중앙삼지국의 후원을어더 오는이십칠일밤에 목포극장에서 남조선수재리재민동정연주회를 개최하기로되여 그준비에 매우분망중이라는데 일반은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安興學校의 公普昇格實現 一面一校完成

【安邊】 함남안변군하도면중평리(安邊郡下道面中坪里)에잇는 사립안흥학교(安興學校)에서는 십여년의 긴력사를가지고 이래유영사업에 만흔 공헌이잇서오든바 동면유지들은 그학교의 긔초를좀더 완전히하기위하야 저간공립보통학교 승격운동에 만흔활동을하여오든바 지난 십륙일에 그운동이 드듸여실현되여 공립보통학교의 인가가되엿다는데 이로서 안변군철면에 일면일교제는실시되엿다고한다

中部朝鮮庭球 鳥致院에서開催

【鳥致院】 조치원 정구구락부에서는 례년과가티 중부조선정구대회를 조선、동아、조선중앙삼지국후원하에 금이십륙일 오전구시에서 한다

平壤府內에잇는 各公設市場擴張 經費九萬圓의起債로

【平壤】 평양부에서는 금년도 추가예산으로 구만여원을긔채하여 부내각공설시장을 대확장하기로되여 방금 연구조사중이라는바 내역은 다음과갓다

▲區域擴張 五萬五千圓 ▲舖裝 一萬三千圓 ▲建物其他擴張 二萬二千餘圓

이것은 관유지가 무료대부로된 사창시장(司倉市場)의용지매수와 각시장의구역확장에 민유지를 구입하는외시장전부를 포장하여 리용자의편의를 도모하며 또대개가 로천(露天)으로 비가오면 폐점하는그런폐해가 적지안히 건물집동을 넉키로 되엿다 한다

水門開放으로 三十餘戶浸水 兼二浦에水亂騷動

【兼二浦】 지난이십사일오전십시경 황해도겸이포 에는대동강으로부터 조수가밀려드러 읍내수도정 길전정대정정(水道町 吉田町、大正町)일대에는삼십여호가옥의 침수를보게 되여더욱이도로에까지 조수가범람 하는동으로 이날은마침 겸이포시일(市日)로서 장군들까지밀려입대소동을 이르켯섯는데 원인은전긔길전정과 대정정사이에잇는 수문을개방 하여두엇든때문이라한다

古邑有志熱誠 義捐應募繼續

【古邑】 본보고읍지국(古邑支局)에서지국장이하지국원들이그지방유지와 오산고보(五山高普)의관계자들의지지하에활동중이든 수해구제금은 벌서사십여원이 모집된바 금후로도모교에의열성으로 유명한 당지오산고보(五山高普)학생과기타유지의 동정금은 더욱다액에달할모양으로 본사고읍지국에 긔탁하리라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七十七)

玄卿駿 作 金熊超 畵

폭풍우 (四)

승우는자긔가 인숙에게 사로잡히는줄을 알고 또한 그것이 잘못인줄을 알면서도자긔로서는 어떠케할수가업섯다

『승우씨! 저는 당신을 밋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것을 승우씨에게 밧치려구합니다』

하는 인숙의 이말은 승우의 마음속에 결심을 완전이 헙어버리고말엇다

『인숙씨! 그것은 저도 잘알고잇습니다』

『그러타면 제마음 삼분의일만이래두 저를 미더주세야허지안허요?』

하며 인숙의 두손은 승우의 손길을 힘잇게 틀어잡엇다

『인숙씨 저는 잠시라도 당신을 오해한것을 깁히 후회합니다』

『승우씨!』

하고인숙이는 어느덧 이슬이 맷진눈으로 승우를 처다보앗다

승우의가슴은 감격에 넘처서 물결치고잇섯다

『승우씨 저는 이때까지 아버지의딸로서 자라왓다지만인제부터는 그모든것이 당신이란 거룩한녀압헤 다 해소가되엿서요 당신은 저의 장래남편입니다 그리구 저는 당신의 안해예요』

하는 인숙의 얼골에는 성숙한 처녀의 수긔가 가득차잇섯다。

승우의 눈압헤는 경호의얼골이원망의주먹을 쥐고 노려보는동무들의 얼굴이 나타낫다 수천수만의 분노에타는군중의 그모양이 어스럽게 나타낫다。

죄행할까?우행할까?

승우는 숨쉬기도 갑벗다

이마에서는 진땀이 소사오르고잇섯다

그는 지금 확실히 긔로에서잇섯다

한발만 내드듸면 천리만리를격한 방향으로 가고마는것이다

그의눈에는 인숙이가 금단의 과실로 되여보혓다 그것을 한입만 떼여먹는날이면 그는 영원의파멸을 엇는것이다

승우의 머리ㅅ속에는 경호의 얼골이 다시 떠올랏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엇고독사갓치 감겨드는 인숙의 요염한 그육체를 풀어던질 용긔가 그에게는 나지안헛다。

『승우씨 저는 당신이 업다면 죽어버릴테얘요』

하고 눈을 감으며 눈물을 한방울 떠러트렷다。

『네?』

승우는 확실히 놀낫다

『그래요 저는 정말 죽어버릴테얘요 당신이 업스면 저의목숨이야 무슨가치가 잇서요?』

집에 돌아온승우는 승옥이조차 정면으로 대할수가 업섯다。

경호는 벌서 자긔의행동을 다알고 잘못보는것 갓하여서 그는 안저잇는것이 일각이밥벗다。

『최군! 오늘일은 어떠케됏는가?』

경호는 승옥이가 밧그로나간틈을 타서 물엇다。

그러나 승우는 대답할말이 업섯다。

『웨 대답이 업는가? 늣럿는가?』

하고 경호는 재차 물엇다

『극장에 모다들 오지안헛데그려!』

하고 그는 죽을힘을 다하야 겨우 이러케 거짓말을 한다음 머리를 푹 숙우렷다

『이사람아 그러면 집에 차저가 봐야지?』

하고 경호는 더말치안코 의심스러운눈으로 그의얼골을뚜러지게 바라보고 잇섯다

그날밤 극장이 끗나자 현은 경호의뒤에 얼마간 떠러저서 따라섯다

집에 도라와보니 아모도업섯다

『최군은 어듸갓는가?』

하고 현은 이상스런눈으로경호를 처다보며 물엇다

『알수업네』

『최군도 함께 모히기루 햇지?』

『응!』

하고 대답한경호는 몹시 불쾌하엿다

NEOJI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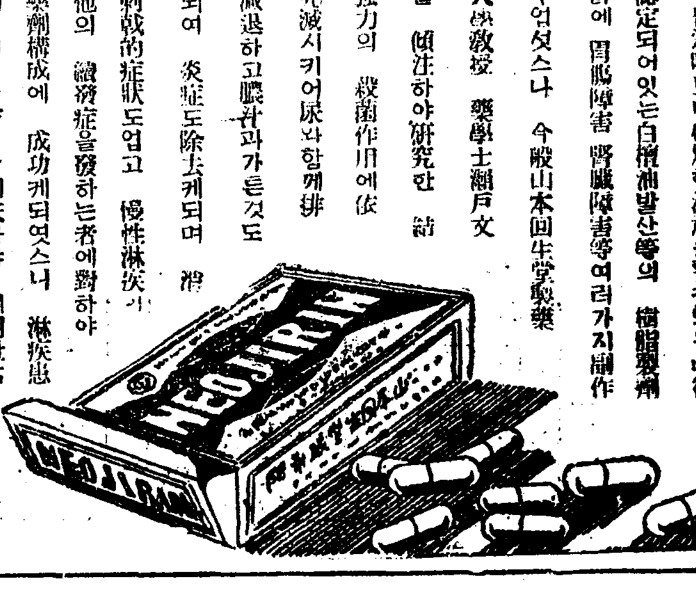
네오지린

淋疾은

녀름철에더욱甚하다

輕症에治療를完全히하지안흐면 뜻하지아니한禍를일으키게된다

昨今과가티 무더운날세에는 身體의新陳代謝가非常히旺盛하게됨을딸아淋疾患者의 淋疾菌도몹시 繁殖되어잇슴으로 藥劑其他의療法을擇擇함에잇서도 普通時보다 格別한注意를要케되는바 從來治療藥으로서 一般에認定되어잇는白檀油발삼等의 樹脂製劑로말하면刺戟性이強한까닭에 胃腸障害 腎臟障害等여러가지副作用을일으키어持續服用할수업섯스나 今般山本同生堂製藥所研究部에서 金澤醫科大學教授 藥學士瀨戶文雄氏와 함께多年間心血을 傾注하야研究한 結果副作用을 除去하며 强力의 殺菌作用에依하야 尿道中의淋菌을 死滅시키어尿와함께排泄하여疼痛、瘙痒의感을減退하고膿汁과가튼것도排泄時마다 漸次稀薄케되며 炎症도除去케되며 消化器系及腎臟等에 對한刺戟的症狀도업고 慢性淋疾이나 膀胱加答兒睾丸炎其他의 續發症을發하는者에對하야도 隨然偉效잇는理想的藥劑構成에 成功케되엿스니 淋疾患者는 一刻을서슴을것업시 이ネオヂリン에依하야 明朗한삶의 眞味를맛보라



武藤、宇佐美兩博士의推奬

이와가티 偉効를 發揮하고잇는 治淋藥ネオヂリン에對하야 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가 特히推奬할뿐아니라、만흔 臨床的比較實驗의 結果急性慢性淋疾에 絕對로副作用이업는 唯一의 理想的新藥이라고 擧世一致로 感謝하여마지안는터입니다。

ネオチリン効用 急性及慢性淋疾、淋濁、尿道炎、膀胱加答兒、攝護腺炎、睾丸炎、마루톨氏腺炎、腎臟炎、其他의淋毒에依하야일어나는諸症

藥價 特製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德用 二十圓 並製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服量用法 一回一個式 一日三回 內服(食後一時間) 膠囊(알맹이)그대로服用하되重症의時는增量하드래도조금도無害

全鮮到處藥店에잇슴

發賣元 株式會社 山本同生堂製藥所 兵庫縣美囊郡細川 振替口座 大阪三九三〇一番 東京五一〇五六番 福岡一四一〇〇番

朝鮮總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一二六 木村藥房 電話本局 三七五 一二〇 一七九三 振替京城四五七

淋疾 에 ネオチリン

最近日本經濟 飛躍과 그原因(一)
高橋龜吉氏講演要旨

京城商工會議所主催로 高橋經濟硏究所長高橋龜吉氏를招聘하야 二十四日午後八時부터 長谷川町公會堂에서 「最近日本經濟의 飛躍과그原因」이란題下에 二時間十分에 亘한講演이잇섯는바 그要旨는大槪如左하다 (一記者)

× 最近日本經濟가 飛躍한特長은 어듸잇는가? 輸出產業이 대단히 發展되엇스니 보다도 從來 輸入하고잇든 產業이 顯著히 發展되엇고 一步를 進하야 積極的으로 輸出에까지 發展할程度로 發展하고잇는것이 事實인바 이 發展이 一時的이나 永久的이나 或은變態的이나 常態的이냐에 依하야 日本經濟의 前途는 그結論이 相異케될것으로서 一時的 變態的이라면 不遠 大反動을 免치못할것이오 永久的 常態的이라면 危懼할바가 업슬것으로 이것을 究明할必要가 잇다。從來는 歐米 特히 歐洲와의關係에 잇서 第三國인 中國市場에서만 日本商品이 歐洲商品과 競爭하고 잇섯던것이 今日에 잇서는 歐洲本國內에까지 進出하야 競爭하고잇는때문에 問題가 커진것이오 日本經濟는 重工業、化學工業等이 非常히 發達하야 自給하고잇는現象인데 如斯히 日本經濟가 發展한原因은 무엇이냐

× 海外에서 問題가 되어잇는것과가티 日本經濟의 發展이 不當한競爭에 依한것이냐 結論을 먼저말하면 不正不當한것이 아니오 根本的으로 日本의經濟實力이 發展한것이다。왜 發展하엿느냐를 말하면 相對的地位와 絶對的地位의 두方面으로 볼수잇스니 約十年前까지도 日本經濟는 歐米에 지지안을만한 힘이 不足하야 悲觀되엇던것이다 日本이 一尺을 進하면 歐米는 一尺二寸이나 一尺五寸씩 進함으로 到底히 日本이 쪼차갈수가 업서 非常한努力을 할지라도 歐米와의 相距는 漸漸멀어가 比較할수가 업서 相對的으로 遲滯하얏던것이 事實이엇다。

× 그러나 其後歐米 特히 歐洲는 그發展이 停頓하고 退步하야 日本이 相對的으로 發展한터인데 왜 歐洲經濟가 退步하얏느냐 하면 그原因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위선 著名한 原因은 一家庭에 잇서도 三代의富가 繼續되기어려운것으로 初代는 刻苦勤勉하야 成功하얏지만 二代 三代가 되면 安逸하고 奢侈해지는 傾向이잇서 國際的으로도 그러하야 歐洲經濟도 非常히 發展하던것이 衰退하얏다고도 할수잇는것과 또 다른 큰原因은 歐洲大戰이엇다。歐洲大戰은 멧千萬弗의財를 破壞식히어 打擊이컷지만 財貨를 失한 以上으로 歐洲經濟를 破壞식힌것은 人物을 이러버린것과 「벨사이유」條約의 두가지가 큰原因이 되엿다。

× 歐洲大戰으로 말미암아 歐洲에는 四十歲前後의 한창일할 壯年이 모다 죽어버렷다 英國가튼데도 지금 잇서 一하고 잇는사람은 六十七十歲의 사람들로 이것을 繼承할사람이 대단히 不足한 狀이며 또 이人物不足보다도 直接的으로 歐洲의戰爭力을 弱하게한것은 「벨사이유」條約이다 米大統領의 民族自決主義에 依한 「벨사이유」條約은 民族自決이란 標榜으로 적고 無力한 群小國家를 만히 獨立식히고 말앗는데 이는 歐洲全體의繁榮을 爲한 생각에서 나온것이 아니오 佛國再의地位를 安固케하기 爲하야 佛國의相對便에 잇는 國家를 만드러 서로 싸우게하야 歐洲全體로서의 發展을 切斷식히고 말엇다 例를 들면 日本에 [illegible] 縣府의安寧을 [illegible] 오게하고 [illegible] 本全體의 繁榮을 圖함이 아니엇스며 積極的으로 日本은 全體的으로 發展된 反對方向을 것게한것이 「벨사이유」條約이엇다。關稅制가 關稅同盟을 避하야 反對하얏다。小國이 關稅를 高하야 經濟力이 衰退해지고 政治反目이 擴大되어 歐洲의發展이 退步로 말엇다。昔日 英國이 貿易、金融의 中心이엇든것은 强大한陸海軍이 잇섯던때문이엇스나 如斯히 歐洲의競爭力이 衰退한때문에 日本의 競爭力이 설령 鈍化하얏섯다드래도 相對的으로보면 日本의競爭力은 增大되엇슬터인데 日本은 一層急激히 發展되엇다。

× 日本의經濟力이 表面은急激히 發展된듯하나 內面으로보면 決코急激하얏던것이 아니오 漸進的으로 苦勞가 築成에 잇섯던것이다。元來 事業에는 投資時代와 收穫時代가잇서 投資時代에는 힘만 들고 利를 볼수업는터로 그일自體가 대단히 하잘것 업지만 收穫期에入하면 利가 斷然히 생기게되어 일이 대단히 順調로 發展되는터이다。日本工業의 進出은 日露戰役의 後이오 關稅自主權이 實際로 생긴것은 明治四十四年이엇는데 機械工業이 熟達해지기까지 오랜동안의 訓練과 投資時代를 지나서 最近에 至하야 收穫期時代에 入한만큼 表面은 急激히 發展된것가티 보이게된것이다 (繼續)

棉花共販內容을非難
棉作者意見無視의狀態로 紡績、指定商本位?

目下總督府에서 今月二十三日로부터 열려오는 棉作主任官會議는 오늘(廿五日)로써 끗이 낫는데 同會議는 昨報함과가튼 棉花共販價格其他에 關한事項을 協定하는것이다 그런데 棉花共販도 恰似히 繭共販과가튼 內容의것으로 繭共販이 製絲家의本位로 되는傾向이 잇는것과가티 棉花共販도 棉作者本位라는것보다 棉花를 사가는商人 卽紡績會社 棉花商의中心으로 되는感이 顯著하다 그理由는

(一) 棉花共販의價格을 協定함에잇서서 各道技術官과 紡績會社 棉花商의會合으로만 되는것 다시말하면 朝鮮棉作者의意見을 眼中에안두는點

(二) 昨年產棉을보면 繰綿을換算하야 約四千八百萬斤中 輸移出되는것은 千二百九萬斤으로 卽產額의 七割五分가량을 朝鮮內에서 消費하고 그남어지 二割五分가량이 輸移出되는터이다 이처럼移輸出이 적음을 不拘하고 朝鮮內棉花共販價를 米棉市價를 標準으로하고 또는 繁雜한算式의必要를 그다지 안는곳긴다는點等으로 朝鮮內棉作共販은 實際에 適應한內容을 具備한것으로 보기어렵다 그래서 棉花共販도 繭共販과가튼結果에 일홀念慮가 不無하고 딸허서 旣報함과가티 棉作의熱이 獎勵함에比하야 顯著한進展이 업는이때인만큼 이에對한 改善의必要가 緊要하다는말이 잇다

米穀根本對策 成案을急行中
九月中旬開催될調查會에 農林省이提出할骨子

【東京電話聯合】米穀根本對策確立의 調査會는 不遠官制도公布되야 九月中旬에 第一回調查會를 열게되엇슴으로 農林省에서는 右調查會에提出할 幹事私案을 빨리收集하야 來月上旬까지는 大體를 定하여가지고 米穀局顧問會議에 農林省案을 提出할터인데 그骨子는 아래와갓다

一、現行의米穀統制法은 存置하드래도 最低公定價格의決定方法最高最低價間에서의賣價等에對하야 改正을爲하도록할것

一、米穀의自治、統制를 圖한다 卽米作組合을 組織케하야 生產의統制를 圖하고 空然한米의增產을 中止하며 農業經營의 綜合的處地에서 生產統制를圖하고 特히 米의地方的緩和를圖할것

一、日本內地米의統制와 同時에 外地米 卽 朝鮮、臺灣米도 統制하야 移入을 適當한數量에 加減하고 이로써 생길外地의過剩處置를 考慮할것

一、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豫算의 損失을 一般會計에 編入하야 米穀資金의 充實을 圖할것

米價値幅縮少를
調查會보다먼저開催가될 顧問會議에提出?

【東京電話聯合】米穀調査會는 來月 官制公布와 同時에 設置되야 곳 第一回의委員會를 開催할豫定인데 同調査會를 열기前 九月上旬에 米穀局顧問會議를 열고 農林省의 意向에對하야 諒解를 求할터이며 外地米統制와 米穀統制法의修正이 論議의中心이될모양이다 그러고 農林省에서는 缺損을 一般計로하는 消極的案과 統制의値幅을 縮少할案中 그一을取할것을 考慮中이라고한다

丸計理事會
會務監督은李康仁氏

中央運輸計算聯合會에서는 二十四日午後二時五十分부터 同會事務室에서 全朝鮮理事會를 開하고 副會長의 司會로 開會한바 出席理事가 十一人이엇다。現狀報告에 이어 立替金에對한延利는 從來名目上으로 遲滯利子日步二十錢이던것을 十錢으로 내리어 遺漏업시 徵收키로하고 保證金을 納入한會員으로도 株式申込이 업는店가 (保證金 三萬七千圓中 未申込額이 七千九百餘圓)에 對하야는 地方的으로 勸誘키로되고 創立總會는 拂込후 九月十五日에 마감하고 九月三十日開催키로 決定하엿스며 役員中에서 會務監督者로 京城李康仁氏가 會長指名으로 被選되엇고 主事制는 新會社創立까지 依然存續在職케하얏스며 法律顧問一名을 任囑託키로한後 六時頃閉會하얏다

新會社順調進行

丸計에서 計劃한 會社組織件은 會員의保證金三萬七千圓과 株式拂込金 一萬三千餘圓으로 二十萬圓資本의 四分一拂込인 五萬圓은 이미 積立해잇는터이다

移出港在米 百卅七萬石
比前月廿四萬石減

朝鮮各移出港의 二十日現在在米高는 民間持三十二萬六千三百三石 政府持百四萬二千七百四十六石 合計百三十六萬九千四十九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六十七萬石의 增加이나 前月보다 二十四萬千九百十九石의減少인데 그內容이 알에와갓다

(以下單位石)

	民間持	政府持
正租	三四三、九一	七七、四四〇
玄米	一五六、三一三	九六二、一五六
白米	一三、八六六	一、六九六
濁米	一、〇四一	—

그리고 各港別은 알에와갓다

		民間持	政府持
▲釜山	正租	三、九四〇	—
	玄米	四七、三二〇	一五三、〇六五
	白米	六、八七〇	—
▲木浦	正租	五六、八七五	—
	玄米	三、八八九	二〇九、四四〇
	白米	一、〇五五	—
▲群山	正租	三〇、〇〇〇	—
	玄米	一〇、三二〇	三四四、八七三
	白米	四、〇〇〇	—
▲仁川	正租	四四、〇五三	七四、三一三
	玄米	三一、八〇六	一、〇九五、五八一
	白米	一三、九八六	—
	濁米	三、八九六	—
▲鎭南浦	正租	七七、三三〇	一、一一三
	玄米	二四、八六六	一〇〇、五九六
	白米	一、九八四	—
	濁米	二〇	—

廿四日米鐵道發送量

	今年	前年	比較
釜山	五五五	三四四	二一一增
大田	四四三	三九五	四八
京城	三〇一	一五五	一四六
平壤	三九	四一	二
元山	一四〇	一七	一二三
城津	三	六	三
合計	一、六一〇	九六八	六四二
累計	四六、一五〇	三三、九七七	一二、一七三

倫敦市場에서 英佛爲替戰
弗貨低의 對抗手段

【電通倫敦二十四日發】倫敦爲替市場에서는 二十四日 아츰 佛國及瑞西가 法을賣煽하며 一面英國은 爲替平衡資金을 發動하야 百萬磅을사서 이것을妨害하고 事實上의 英佛爲替戰이 開始되엇다 磅貨의 暴落에 伴하야 金은 一온스에 一擧七片半이 昂騰하엿다 專門家側에서도 이것은 米國의 銀國有에 作하는 最近弗貨의 低落에對한 對抗手段이라고 解釋되며 或은 루즈벨트大統領이 弗貨를 切下할것을 豫想하고 이에 對應하는것이라고한다

▲米國商工農界消息【電通紐育二十四日發】二十四日發行의 經濟雜誌 「단아드·부랏도스토리ー트」는 알에와가티 報道한다
今週商工農界에 亘하야 매우險한 이세인 徵收가 認定케되다

公債續落의事情
深井日銀副總裁言明

【電通東京電話】最近國債의 低落傾向으로 前途가 悲觀되야 一般의 注目하는데 深井日銀副總裁는 二十四日 알에와가티 言明하엿다
國債의 市價軟調에對하야 世上에서는 그主要한原因을 五分利借換念慮와 日銀의 마켓오페레순의 過度로因한 短資의 異例的硬化에 잇는것처럼 傳하고 日銀은 若分 國債의 買止를 할것이라는等을 主張하는사람이 잇는모양인데 日銀는 今後라도 從來의方針을 變更할意思가 업다 卽 市中銀行側이 一般의 投資處가 缺하고 過剩資金을 그대로 存케함은 매우 不自然한 現象으로 決코 好結果가 될수업다 또反對로 國債의 賣却을 要望하면 事情이 許하는데까지 日銀은 此等에 應하는것도 亦是自然의일이다 그러나 少量의것에對하야 함부로 그要望에 應하면 證券業者의일을 빼앗는것이 됨으로 直接日銀이 賣行을 避하랴고한다

商工界消息

▲石川氏工業振興講演會=京城商議에서는 東京都市計劃委員工學士石川榮耀氏를 招聘하야 今月二十七日 午後八時부터 公會堂에서 『京城商工業振興方策과 繁華한商街』라는 題目의 講演會를 열리라고

▲京城府筑商會陳列販賣所=京城府筑商會에서 囊者부터 南大門角에 自轉車及附屬品의 陳列販賣所新築을 工事中이든바 去月에 落成되야 目下進步的施設로 營業中에잇다고

株式 極少幅에 保合

商況(廿五日)

前場保合 休日을압두고 [illegible]

無新味無動意
極少幅의細刻

東新은 百四十七圓臺에서 四十錢幅으로 不動이오 日產은 百三十圓臺에서 十錢幅에 釘着으로 全혀 動意가 업시 新味업는 商狀임으로 强弱論을 相交할 餘地가 업는터인데 不安多分은 容易히 解消되지안으나 이氣分과 反對로 市勢는 低堅을 不失하는때문에 雙方이 모다 輕擧를 避하고잇는모양이다 要컨대 가을市勢를 期待하고 買付하얏든것이 內外環境不良으로 失望氣分이 생긴것이 事實이나 財界가 反動時代에 轉한것이 아니오 今後必然的으로 「인푸레」가 豫想되고 國際不安도 다만 人氣作用에 止하야 實際가 險惡한것이 아닌以上 目前의 嫌氣를 大勢的으로 賣할이 得當타할수업다 市勢는 當分保合이 더繼續될지도 모르며 下向이 잇슬지도 모르나 當限落後 잠이터가 버위지고나면 來月에 入하야서부터 秋氣分이 相當히 濃化될터이니 徐來할 上分岐點을 買狙할 準備가 必要할듯한바 果如何?

秋時勢前哨戰

一時的現象이나마 金融은 미緩되고 對露念慮가 解消되지안으며 各國의 日貨排斥은 不息하고 農村窮狀深刻化、重要商品不安定等으로 가을市勢도 失望氣分이 濃厚하야 投資家는 기운이 줄고 新規出動할 勇氣가 喪失되어 다만 玉關係에 依한 小動에 不過한것이 現狀인데 目前强力한材料에 接치안은限 雙方共히 嫌氣를 길게하야 此間玉整理는 一層進捗되고 嫌氣에 伴하야 賣込되다면 後日轉換을 培養케되어 漸次 가을市勢의 前哨가 될것이다

後場休會

大阪短期氣配가 大新十錢高、鐘新四十錢高、日產二十錢高、東新不變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 大體强含이엇다

朝新九圓臺割

二十九圓臺에서 오래동안 保合閑散이던 朝新은 今前場實物滯에 [illegible]
日立會인 今前場은 依然保合圈을 未脫하야 細刻이엇스며 다만 朝新低가 눈에띄일뿐이엇스니 卽 朝鮮內鐵賣物로 二十八圓八十錢에 昨後止보다 六十錢低로 大引되엇고 東新 百四十七圓七十錢에 銷高後 三十錢을 低價로 四十錢에 結局保合大引、大新 九十二圓九十錢에 三十錢低로 大引、日產 百三十圓四、五十錢間 細刻으로 大引、八十錢、安取六圓丁、朝紡 九十六圓丁이엇섯는데 東新步調는 如左하다

◇東新 一四七〇(寄) [illegible] (引)

株界六感

× 요사이 가티 지긋지긋이 採合다가다 結局 嫌氣投가 잇고야 말것가트나
× 市勢自體는 閑散採合裡에 底堅味를 不失하야 얼는 下向치도 안는다
× 一錢低가 잇스면 오히려 上向의 動機가 되어 妙味가 잇슬것인데 目前 容易히 保合圈이 離脫치안을모양이니 걱정
× 目前市勢의 壓迫거리는 增稅問題와 日蘇問題가 큰것인데 增稅는 織込된것이오 日蘇問題도 將來에 屬한問題
× 好材出現이 업는지라 애쓸것도 안되고 焦燥해도 안되니 買方은 來月까지 참는수박게 他途가 업겟지?
× 採合中에 秋高의 準備工作이 培養될것이니……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錢)	今日止	先日比
仁川期米先限		二四三二	六低
大阪期米先限		二六二〇	二〇低
京城精白米一石		三〇〇〇	不變
正租(仁川)一斤	(改良) 一三	(在來) 一一	

市中金銀價

	一匁	一匁
金	一三圓〇〇錢	一三圓〇〇錢
銀	一七錢五厘	一七錢五厘

株 (單位錢)	今日止	先日比
鐘紡	一八〇	五〇低
東新	一四七七〇	不變
日產	一三〇三〇	一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二一〇五〇	一〇高
大阪棉花	六〇〇	八高
大阪人絹	九〇〇	五高
大阪砂糖	二二九	八低
고무現物(錢)	三〇 先物 六四	

期米 一段低後 下澁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二十六圓三十七錢止와 比하야 二十四圓三十七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七圓二十六錢인 十一丁低落을 據하고 二十四圓三十一錢인 六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二十六錢의 四番間價로 二十八錢까지 小戾하엿다가 反히 軟弱에 傾할뿐아니라 當地當限의 賣物이 俄然續出하야 三十餘丁의 瓦落을 告한과 相俟하야 先限도 二十錢安으로 反落하야 結局阪止二十五錢과 共히 二十錢에 止場하다

後場下支

後場은 二十四圓二十錢에 不變於場後 二、三節 十九錢으로 四節 二十錢에 下支모양이엇스며 別欄과가티 止場하다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金利의 引締도 一時的으로 보이어 今朝는 全面的으로 賣人氣의 反動人氣를 呼하야 國債二十錢餘高、佛貨債七、八十錢高의 急奔騰을 演하얏고 米貨債도 五分半二圓五十錢高 六分半三圓高의 市況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三、一〇
一回四分利	九九、三〇
佛貨四分利	一八六、四五

凶作과拂下로 市勢中途彷徨

今年度의 稻作은 朝鮮의 一千三百萬石과 日本內地의 五千九百萬石 豫想說이 濃厚한 今日임으로 今後 秋日氣가 良好하다할지라도 그以上의 收穫은 期待키 難할모양이오 秋日氣가 險惡하는때는 그以上의 減收를 見하게될것임으로 何如間 樂觀을 許하지는 못할 모양이며 目下情勢로보면 政府로서 拂下를 續行하야 端境期의 糧米不足을 緩和케할 方針임으로 一般一强의 兩材가 相半하야 沽卓한 市勢를 내지못하고 中途에서 彷徨할뿐이다 그러나 此兩材料를 均衡的으로 본다면 拂下는 姑息的狀態에 不過하고 凶作은 遠한將來에까지 强材化할 性質의것임으로 結局은 內作的本格的市勢가 展開되고야말 모양이다

阪當依然頑强
馬越受米模樣

當地當限은 幾分軟態를 脫치못함에 反하야 阪地當限은 二十八圓內外에서 依然强調를 保持하고잇다 要하면 阪當의 싸홈은 賣方山種一派와 買方馬越一派의 對峙로 山種側은 東京大阪兩市場에 亘한 當限渡米를 蒐集하기 爲하야 朝鮮米의 第一次拂下에도 落札을 入하야 旣히 五萬石을 吸收하엿스며 馬越側은 그渡米를 受取하기 爲하야 絶對馬力을 加하고잇다 最後의 決戰如何는 아즉 斷言할수업스나 渡方으로서는 渡米不足의 嫌이 업지아니하야 昨日阪地市場에서 賣買兩方間에 當限八千餘石의 乘替解合이 잇섯는데 此는 强材의 一助로 볼수잇스며 受方으로서는 渡米를 受한後일지라도 凶作을 豫想하는 今日인만큼 受米의 處分이 無難할이라하야 少毫도 屈함이업시 長足을 進하고잇다 今後決戰이 果何如?

米豆餘話

◇當地當限은 今朝三十餘丁이나 瓦落하엿다 渡米의 無難을 暗示하는군
◇그런데 阪地當限은 依然强保勢로 容易히 滑落을 不許
◇賣方의 主力側인 山種이야말로 바로 力拔山의 威力을 加하고 買方先鋒인 馬越은 絕對馬力을 發揮하고잇다
◇산이 문허지느냐 말이 飛上天을 하느냐하는것이 阪地當限戰의 一大注目거리
◇朝鮮米의 第一次拂下米는 處分도 하기前에 또 第二次拂下를 하엿스나 當分軟弱은 難免?
◇그러나 拂下는 一時的 弱材일것이오 凶作은 逐然한 强材가 되고말것임으로 押目買가 得意

各地正米

京城頭重 期米低와 共히 頭重形勢이오 活氣薄의 商狀으로 市勢는 十錢低를 告한 ㊂三等二四、七〇 四等二四、五五、一等白米一八、〇〇

仁川低落 出廻五輛、拂下를 압두고 氣迷가 濃厚하야 賣買雙方이 形勢傍觀이오 取引이 乏하야 無活氣保合인 ㊂三等二五、一〇 四等二四、九〇 一等白米一二、二〇

木浦焦付 定期鈍重이오 買方이 一般으로 低價唱이나 所持의 賣躊躇로 新規取引이 업고 焦付인 ㊂三等二五、二〇 四等二四、八〇 一等白米一〇、二〇

群山保合 第一回落札米의 消化不進捗에다가 日本內地 不買로 買氣가 全혀 衰하야 期米低와 共히 十錢低落인 ㊂三等二四、七〇 四等二四、五五、一等白米一〇、二三

釜山頭重 出廻四千叺 定期低를 移하야 人氣不立이오 精米側의 準備買가 散見될뿐으로 市況은 沈靜을 繼續하야 頭重保合인 ㊂三等二四、四〇 四等二四、一〇 一等白米一〇、五〇

大邱不變 二次拂下를 目前에두고 買氣不振이오 氣候念慮로 適品이 적어 市況은 거의 不變인 ㊂三等二三、九〇 四等二三、六〇 一等白米一〇、一〇

南浦保合 開城의 事情을 보고 販入한 買氣가 업시 當用買에 止하야 不凡程에 保合인 ㊂三等二五、〇〇 四等二四、八〇 一等白米一〇、二〇

堂島前場釘付

【大阪電話】休日을 압두고 氣乘薄이오 小浮動裡에 釘付商狀을 呈하얏다 ▲賣方東京側、地場、正米側、中東側(乘替乘客側) 買方、地場、東京側別派、西山側、九州側、目前側
▲先限(賣)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九百枚 ▲東邦電力 [illegible] ▲太同電力 [illegible] ▲日本電力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滿洲瓦斯新 [illegible] ▲櫻田機械 [illegible] ▲證券金融 [illegible] ▲滿洲 [illegible] ▲朝日釀造 [illegible] ▲東洋 [illegible] ▲東滿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米穀 (廿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棉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카나다期麥 [illegible]
鰹油相場 [illegible]
大連特產時勢 [illegible]
滿洲商品 [illegible]
鰯搾粕相場 [illegible]

株式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